


강원지역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전문가포럼


2021. **05. 12**


수요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강원도

 강원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강원학연구센터  
The Institute of Gangwon Studies



## Program

**【주제발표】** 14:00~15:30

사회 유영심(강원학연구센터 부센터장)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강원도의 대응 방향**

/ 김창겸(김천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강원도 역사문화권 설정 용어로서의, 예맥**

/ 김택균(세경대학교 명예교수)

**고고자료를 통해 본 예맥역사문화권의 시공간적 양상**

/ 최종모(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

**휴식 시간** 15:30~15:40

**【종합토론】** 15:40~17:30

좌장 유재춘(강원학연구센터장)

---

김규운(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규호(강원도의회 도의원)

김병석(강원도의회 도의원)

박미현(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이상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장원섭(경민대학교 효충사관과 교수)

차장섭(강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허남윤(강원일보 문화체육부장)

---



# Contents

## | 주제발표 |

-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강원도의 대응 방향 ..... 09  
/ 김창겸(김천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 ◇ 강원도 역사문화권 설정 용어로서의, 예맥 ..... 17  
/ 김택균(세경대학교 명예교수)
  
- ◇ 고고자료를 통해 본 예맥역사문화권의 시공간적 양상 ..... 57  
/ 최종모(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 | 종합토론 |

- 김규운(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73
- 김규호(강원도의회 도의원) ..... 75
- 김병석(강원도의회 도의원) ..... 77
- 박미현(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 79
- 이상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83
- 장원섭(경민대학교 효충사관과 교수) ..... 85
- 차장섭(강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89
- 허남윤(강원일보 문화체육부장) ..... 91



주제발표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강원도의 대응방향

김창겸(김천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  
강원도 역사문화권 설정 용어로서의, 예맥

김택균(세경대학교 명예교수)

—  
고고자료를 통해 본 예맥역사문화권의 시공간적 양상

최종모(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강원도의 대응방향

김창겸 / 김천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 1. 머리말

### 1) 현대사회의 특징 : '문화의 시대'

- 문화적 총량 :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과 내부적으로 경제적 성장의 자원, 대외적인 평가와 이미지 제고의 척도

→ 문화의 개발, 콘텐츠화, 서비스 노력

- 해당 국가와 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 자료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 근거, 중요한 관광 자료, 교육 자료

→ 이런 이유로 역사문화재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경주

### 2) 우리 정부(문화재청)는 2021년 6월 10일자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12호) 시행 예정

-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 범위 추가 확대 지정 또는 신설 요구

→ 대응 방안 모색

### 3) 강원도 지역 : 대상 누락

- 충청북도 : 중원역사문화권 신설 개정법률안 제안

→ 경북, 강원 일부 지역 포함 요구

- 강원도의 대응 방향 : 기 제기된 역사문화권에 포함 ?

독립 단위 역사문화권 신설 ?

## 2.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특별법

### 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필요성

#### (1) 고대 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한 관심 고조

- 문재인 정부 : 가야사 복원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가야사 복원문제 추진 → 성과 축적

- 근래 우리나라(한반도)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관련하여 8건 법률안 제안 :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 법률안’,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마한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탐라역사문화권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단체가 경쟁적으로 특별법안을 발의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 현상 노출.

(2) 정부(문화재청)는 증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권역의 연구와 보존, 관리, 정비를 목적으로 특별법 제정

- 2019년 12월 10일에 제정된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2020년 6월 9일에 제정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6개 법률안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 2020년 5월 20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오후 4시 10분 개의, 약 140여건 법안 처리 통과

- 이들 법안 중의 하나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9년 4월 11일 제안, 같은해 6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2020년 5월 초 문체위를 통과한 제정 법률안. 같은 해 6월 9일 공포

- 법률은 2021년 6월 10일자 시행 예정.

2) 역사문화권 정비 법률의 주요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시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역사문화권에 대해 규정하고 구분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위 조항에서 대한민국 도 단위 지역들은 이 법에서 제시된 6개 역사문화권에 분산 편재 : 다만 강원만 누락, 제외

→ 대체로 가야와 마한 존재한 4~5세기 영역 근거? : 신라 축소, 고구려 과대, 마한과 탐라 부각, 고대 역사문화 전체 포함(X)

이 법의 제1장 '총칙'의 제2조 3항에서,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어서,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조(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원칙) ① 역사문화권은 과거·현재·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정비되어야 한다. ② 역사문화권의 유형·무형 유산은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규정.

→ 결국 특별법은 그 동안 문화유산의 점 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해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복원하기 위해 제정.

(내용)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 정의

-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
- 연구재단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시책을 마련, 추진 등

3) 해당 '특별법'와 개정법률안 제안 발의 현황

(1) 법안 내용, 특히 권역 설정에 대해 지자체의 이견과 반발 등 논란, 대응책 마련과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하는 개정안 제출

(2) 각 광역 지자체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은 법안의 역사문화권 규정에 지자체의 명칭 등재, 또는 하나의 독자적 단위로 설정 노력

- 전남 일대만 포함된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보완 수정을 요구하는 안(3건) 발의 제안.

-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중원역사문화권'을 추가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2건) 발의 제안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2020.10.8. 제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2020.11.2. 제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2020.12.16. 제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2021.1.29. 제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2021.3.23. 제안) 등 5개 개정안 발의

(3) 현재 이들 발의안 모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중

| 순번 | 제안 시기      | 제안자   | 핵심 내용                      | 현황     | 의안번호    |
|----|------------|-------|----------------------------|--------|---------|
| 1  | 2020.10.08 | 윤영덕 외 | 마한역사문화권(광주, 전남지역 포함)       | 문체위 계류 | 2104463 |
| 2  | 2020.11.02 | 이상직 외 | 마한역사문화권(전북 지역 포함)          | 문체위 계류 | 2104818 |
| 3  | 2020.12.16 | 문진석 외 | 마한역사문화권(충청지역 포함)           | 문체위 계류 | 2106499 |
| 4  | 2021.01.29 | 도종환 외 | 중원역사문화권 신설(충북, 강원, 경북 일부)  | 문체위 계류 | 2107795 |
| 5  | 2021.03.23 | 이종배 외 | 중원역사문화권 신설(충북, 강원, 경북, 경기) | 문체위 계류 | 2109026 |

### 3. 강원도의 대응 방향

\* 2021년 6월 10일 시행 예정 특별법에 강원도 언급 없음. 강원도는 고대역사문화권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 취급 제외?

#### 1) 기 제안 개정법률안 포함

(1) 신설 역사문화권 포함 : 기 제안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중원역사문화권 신설하고 강원도 지역의 일부(원주, 영월 등) 포함.

- 강원도 북부지역과 영동지역 누락 - 강원도 전체 지역 포함 - 이질적 결합
- '중원' 역사문화권 명칭의 불균형성? → 특별법에서는 고대 정치체 명칭 사용

#### 2) 강원도의 대응 방향 제시

(1) 기존 법에 포함되는 개정법률안 제시 :

- ① 고구려역사문화권에 포함? - 중국의 동북공정(고구려사 편입)에 역이용, 한국 국고대사 왜곡 우려
- ② 신라역사문화권에 포함? - 동질성 빈약

(2) 독립된 역사문화권을 설정하는 개정법률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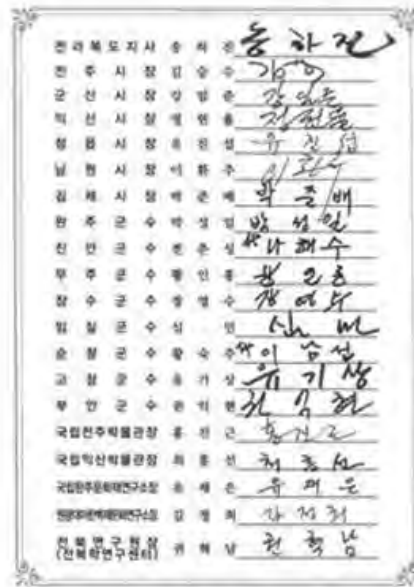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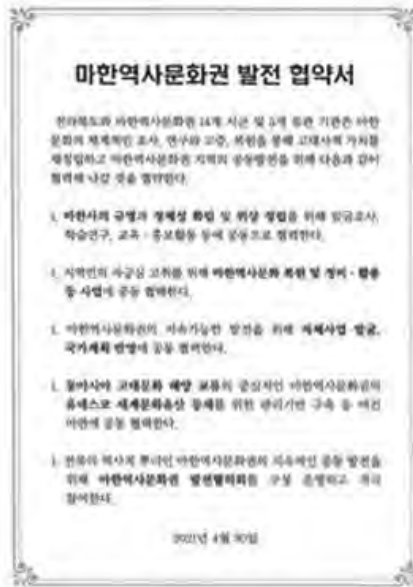
- ① 예맥역사문화권 설정 ? - 예맥 실체 논란?  
- 관련 문화재 ? (다음 발표자 내용 참조)
- ② 태봉역사문화권 설정 ? - 철원(궁예 도성), 영월(세달사), 강릉(명주군왕릉), 춘천(신승검묘), 원주(북원경과 양길 유적), 경기도 안성(칠장사 궁예 미륵불) 등 지역 문화재 발굴과 정비 및 복원,

- 북한 지역 공동 발굴

- \* 참고 : 전북 지역 - '후백제역사문화권' 제안 기미?  
'발해역사문화권' 거론 여지?

## 4. 맺음말

- 강원도의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
- 지역간 균형 발전 계기
-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 정비, 활용과 가치 창출 기회
- 강원 지역 관, 학, 민의 협력 체제 구축
- 중장기 계획안 수립, 추진







## 강원도 역사문화권 설정 용어로서의, 예맥

김택균 / 세경대학교 명예교수

### 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목적 재론

- 현재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점 단위로 관리, 보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해 공동연구,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추진 중인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된 6개문화권(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이 설정되어 고대에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이었던 북한강 남한강 유역을 비롯한 오늘의 강원 영동지역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은 빈 공간으로 남아 마치 사람이 살지 않았거나,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靑空間的 의미를 상실한 지역이 되어 그 지역간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 조사, 복원하고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함을 그 목적과 의미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중요한 역사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현 강원도 지역이 배제 됨으로서 靑空間的 의미를 상실함은 물론 현재 이 땅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실감과 소외감은 매우 큰 실정이다.
- 따라서 이에 대한 再考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 역사문화권 설정에 있어 예맥문화권의 의미

1. 시공간적 의미 : 대략 5-6세기초 이전까지 이 지역은 국가적 형태를 갖지는 못하였으나, 정치적으로 어느 한 곳에 속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따라 외교적 필요에 의해 정치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하며 생존하여 왔다.
  2. 문화적 의미 : 문제가 일부 있으나, 고고학계에서 삼국의 어느 지역과도 차별성을 갖고 있는 “中島類型文化圈”이라는 용어 설정은 북한강과 남한강 그리고 강원지역의 동해안 문화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은 시공간적 의미의 연속성과 사실성, 그리고 그 문화의 독자성과 차별성에서 하한의 문화권 설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 濊貊문화권의 개념

- 江原道를 가리켜 옛 濊貊의 땅으로 지칭하게 된 것은 물론 江原道가 行政區域名으로 나타나는 太祖 3년(1394년)이후의 일이다. 원래 濊貊은 韓과 더불어 고대중국의 史書에서 우리 민족의 종족 명칭으로 불려져 왔다. 『書經』, 『詩經』에서 부터 나타나는 濊貊은 『史記』 『漢書』에 이르기까지는 주로 만주지역에 있었던 우리민족에 대한 종족 명칭의 하나로 불려져 왔으나 夫餘 高句麗가 강성하여 지자 이들의 구성체가 된 濊貊은 『三國志』 『後漢書』에 이르러서는 만주지역에 있던 이들의 일파가 남쪽으로 이동한 동해안 지역의 濊國과 春川을 중심한 영서지역과 일부 경기 북부지역을 포함하는 貊國을 지칭하게 된다. 이 예맥은 『漢書』 『三國志』 『後漢書』에 이르면 濊와 貊으로 單稱 혹은 濊貊으로 連稱되기도 하여 혼동을 주기도 하나 주로 濊는 夫餘의 구성체로 貊은 高句麗의 구성체로 파악된다.
- 『三國志』와 『後漢書』에서는 한반도내에 존재한 濊傳을 두고 있다. 이후 『三國史記』 地理志가 賈耽의 『古今郡國志』를 인용하여 春川을 貊國, 江陵을 濊國으로 비정했을 뿐 아니라, 『三國史記』 本기에 이 지역에 근거한 3건의 貊國관계 기록과 『三國志』 『後漢書』 『隨書』 등의 기록 이래 특히 朝鮮朝 이후 江原道 지방은 濊貊之地로 불려져 왔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 성과는 이 지역의 문화권을 독립적으로 차별화하여 “中島類型文化圈” 으로 그 정체성을 명명해 왔다.

- 한반도내의 濊를 지칭하는 최초의 중국 측 기록은 『三國志』 『魏志』 東夷傳이다. 『三國志』 東夷傳 濊傳에는 “濊는 南으로는 辰韓과 접하고 北으로는 高句麗 沃沮와 東으로는 大海에 이른다 지금 朝鮮의 동쪽이 그 땅인데 戶數가 2만이다.” 라고 되어있다.
- 『後漢書』 역시 『三國志』를 거의 답습하고 있다. 『後漢書』에는 “濊는 북으로는 高句麗 沃沮와 남으로는 辰韓과 접하고 서로는 樂浪에 이른다. 濊 및 沃沮 高句麗는 본래 모두 朝鮮의 땅이다” 라고하여 서쪽에 樂浪이 있음을 첨언하고 있다.

- 이로서 『三國志』와 『後漢書』가 가르키는 濊가 함경남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 일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三國志』와 『後漢書』가 편찬되던 시기에는 이미 濊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중부지역과 동해안 일대로 고정되는데 濊傳에는 貊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록인 『三國志』의 高句麗傳 에는 高句麗가 남쪽으로 朝鮮 濊貊과 접하고 沃沮傳에는 沃沮가 남으로 濊貊과 접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後漢書』의 기록도 『三國志』와 같다
- 兩書의 濊傳에서 밝힌 濊의 위치와 兩書의 高句麗傳 과 沃沮傳에서 밝힌 濊貊의 위치는 동일하다. 따라서 兩書의 濊傳은 濊貊의 오기이거나 貊傳 의 누락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당시 貊은 樂浪의 예속하에 있어 독립된 세력으로 보기가 어려워 독립적인 濊만 기록된 듯 하다. 어쨌든 後漢代(A.D 25~220)와 三國時代(A.D 220~264)에 걸친 시기에는 樂浪 高句麗 沃沮 그리고 辰韓에 에워 싸인 세력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 존재한 것만은 틀림없다.

## 1. '嶺西貊'의 실존 근거

### 1) 문헌적 근거 - 영서지역 "貊國"의 존재를 전하는 기록

- 1) <三國志>, <後漢書>의 (東夷傳)
- 2) <北史>, <隋書>의 (百濟傳)
- 3) <삼국사기> (신라본기)2회,  
(백제본기)1회, (지리지)
- 4) <삼국유사>
- 5) <고려사> (지리지)
- 6)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 7) <삼국사기> (백제본기)29회-靺鞨(嶺西貊)  
(신라본기)15회-靺鞨(東濊)

## 2). 고고학적 근거

- (1)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에 분포하는 貊族의 묘제인 무기 단식적석총이 東濊지역인 영동과 함경도지역엔 없다.
- (2) 육각형집터와 당시대 집터에서의 '구들'은 영서지역에 서만 발견되고, 영동지역엔 없다.

## 3). 지명, 전승에 보이는 근거.

- 1) 발산1리 - 바리뫼 (發의산)=(맥의산)
- 2) 맥국산 - 발산1리 소재
- 3) 귤터말 - 귤터마을. 발산1리
- 4) 맥뚝 - 발산1리 소재
- 5) 삼악산성 - 맥국과 신라전투 전승
- 6) 시궁치 - 등선폭포의 1960년대까지 지역민의 호칭
- 7) 의암(衣巖)
- 8) 칼봉(검봉)

#### 4) 금석문(金石文) 자료의 근거

중종실록에서 윤희평이 중종에게 맥국(貊國) 인장 발견을 보고한 기록.

#### 예국. 맥국 - 印章



晉率善濊伯長



晉率善 濊伯長

羅福頤 主編.故宮博物院研究室 璽印組編,『秦漢南北朝官印徵存』. 文物出版社. 1987. 353~354等.

### 2. “영서맥(嶺西貊)을 부정하는 “嶺西濊說”에 대한 논리

#### 1) 문헌기록의 불신과 我田引水式 해석

(1) <삼국지> (동이전)에 ‘濊傳’은 있으나, ‘貊傳’은 없다. 그러므로 맥은 없다.

(‘맥’이 실리지 않은 이유 : 自單單大山嶺以西屬樂浪, 自嶺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後省都尉, 封其渠帥爲侯, 今不耐濊皆其種也. 漢末更屬句麗..)

## 해석

- 單單大山領의 서쪽은 樂浪에 소속되었다.
- 領의 동쪽 일곱 縣은 [東部]都尉가 통치하는데 그 백성은 모두 濊人이다.
- 그 뒤 도위를 폐지하고 그들의 우두머리(渠帥)를 봉하여 侯로 삼았다.
- 오늘날의 不耐濊는 모두 그 종족이다. 漢末에는 다시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 (한말 고구려에 예속했다 하여 낙랑과 대방태수의 공격을 받는 대상은 영동지역의 동예이다)

## <영서예설> 논자의 주장

- 單單大山領의 서쪽은 樂浪에 소속되고,
- 領의 동쪽 일곱 縣은 [東部]都尉가 통치하는데 그 백성은 모두 濊人이다.
- 濊人에 대한 김창석교수의 해석  
: 그런데 양편은 모두 예족 분포지였다

- - 중국정사는 중국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지역은 열전에 넣지 않는다.
- AD30년 맥은 그대로 낙랑에 속하였고, 동부도위에 속했던 지역은 통제가 어려워 독립시키는데, '동예'와 '옥저'가 된다.
- 그래서 濊와 沃沮는 <동이열전>에 수록되고, 貊은 빠지게 되는 것이다.

•(2) 『三國志』 「東夷傳」 濊條

• “濊는 南으로는 辰韓과 접하고 北으로는 高句麗 沃沮와 東으로는 大海에 이른다. 지금 朝鮮의 동쪽이 그 땅인데 戶數가 2만이다.”

- 그러나 김교수는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예의) 땅’이라고 했으니 예의 서변이 조선과 접한다는 말로 해석하여 조선 즉 낙랑의 서쪽은 모두 예로 본다. (본 책자 79쪽)
- 즉 ‘동예’에 대하여 서쪽은 ‘영서예’라는 것이다.

- 영동에 이어 영서지역도 ‘濊’라면 <삼국지> (동이전)의 “濊傳”에서 예의 남쪽은 辰韓과 馬韓이 있다고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단단대령(철령, 김창석.)의 서쪽 즉 영서지역도 모두 예족이라면, 예의 남쪽은 진한과 마한이 있다” 고 기록해야 한다.



- 그러나 '동예'는 만주지역의 '원예(原濊)'에 대해 '동예'인 것이다.
- '부여'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동부여'와 같은 이치다.

- 그의 논리대로라면 '동예'에 대해 서쪽에 '예'가 있다면 '서예(西濊)'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 중국측 사서나 삼국사기에 없다는 '맥'은 수회에 걸쳐 나오는데, 단단대령의 서쪽에 동예에 대한 서쪽 예가 있었다면, 적어도 '서예'나 '영서예'라는 기록을 단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는가?

- 『삼국지』 「위지」 東夷傳에 기록된 濊의 남쪽에 辰韓이 있고, 馬韓이 있다는 말이 없는 것 하나만으로도 “嶺西濊說”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김창석의 논조처럼 만약 영서지역과 경기 북부지역 황해도 일부지역까지도 濊의 영역이었다면, 濊는 남으로 東濊의 남쪽인 辰韓과 소위 嶺西濊의 남쪽인 馬韓과 접한다고 했을 것이다.

- 이 『삼국지』 와 『후한서』에 기록된 濊의 위치문제 하나로도,
- ‘嶺西濊說’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三國志』 「東夷傳」 高句麗

-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는데, 남쪽은 조선(낙랑, 평양), 예맥과 접한다.
- 조선은 낙랑, 예맥은 예와 맥 즉 ‘동예’와 ‘영서맥’이다.



#### (4) 『三國志』卷四魏書 四三少帝紀

- 第四 (陳留王)
- (景元二年(261))秋七月,樂浪外夷韓濊貊各率其屬來朝貢
- 낙랑이 그에 속한 外夷인 한, 예, 맥을 각각 거느리고 조공하여 왔다.

#### (5) 『삼국지』 「魏書」30 (東夷傳) 韓條

- “[後漢의] 桓帝·靈帝 末期에는 韓과 濊가 강성하여 [漢의] 郡·縣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郡縣의] 많은 백성들이 韓國으로 유입되었다”.
- 혼란 속에 겨우 연명하던 후한 말기에 독립되어 있던 동예가 한과 더불어 강성해지자 본국의 정세에 불안을 느낀 군현의 백성들이 한(韓)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 “영서예(嶺西濊)”가 존재했다면, 군현의 백성들이 한(韓)으로만 가지 않고 더 가까운 “영서예”지역으로도 간 것으로 기록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 강성해진 ‘동예’지역으로는 멀어서 가기가 어려워서 ‘한’으로 흘러 들어 갔다고 보아야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 (6) 『北史』 「百濟傳」

- “백제로부터 “百濟自西 行三日 至貊國 千餘里云”
- **그간의 해석** : 백제의 왕성으로부터 서행 3일 이면 맥국에 이르는데, 그 지경(地境)이 천여리에 이른다.
- 중국사서는 때로 東과 南, 西와 北이 동의어로 인식 표기되고 있다.
- 백제 서쪽으로 부터 3일을 가면 맥국에 이른다. -허준구
- <百濟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백제와 맥이 인접하고 있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사서는 때로 東과 南, 西와 北이 동의어로 인식 표기되고 있다.



### (7) 『隋書』 「百濟傳」

- “百濟自西 行三日 至貊國云”
- 허준구 선생 : 백제 서쪽으로 부터 3일을 가면 맥국에 이른다.
- 본인도 위 해석이 옳고, 그 이전 본인을 비롯하여 모든 학자들이 잘못된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원용했음을 인정한다.

### (8)<삼국사기> (新羅本紀) 儒理 尼師今

- 十七年(40), 秋九月, 華麗·不耐二縣人連謀, 率騎兵犯北境. 貊國渠帥, 以兵要曲河西, 敗之. 王喜, 與貊國結好.
- 17년 가을 9월 화려·불내 2현 사람들이 함께 모의해 기병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침범했다. 맥국(貊國)의 우두머리[거수(渠帥)]가 군사들로 하여금 곡하(曲河) 서쪽을 막아 물리치게 했다. 왕이 기뻐하여 맥국과 우호를 맺었다.

- 위 신라 유리왕 17년조의 기사는 濊와 貊이 동일한 공동체가 아닌 적대세력으로 묘사되고 있다.
- 즉 예와 맥은 사료를 비틀지 않는 한 동일공동체로 볼 수 없는 이질적 세력이다.

### (9) <삼국사기> (新羅本紀) 儒理 尼師今

- 十九年(42), 秋八月, 貊帥獵得禽獸, 獻之.
- 19년 가을 8월에 맥(貊)의 우두머리가 짐승을 사냥해 바쳤다.

## (10) <삼국사기> (백제본기)

- 十三年(298), 秋九月, 漢與貊人來侵. 王出禦, 爲敵兵所害薨.
- 한(漢)이 맥인(貊人)을 이끌고 와서 침략하였다. 왕이 직접 나가서 방어하다가 적병에게 살해되었다.
- 한(漢)은 낙랑이고, 맥인(貊人)은 '영서맥'이다.

- 이 <삼국사기>의 세 기록은
- 한반도 중부지역에 맥국 또는 맥인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 사료를 무시하지 않는 한,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 (11) <삼국사기> (지리지)

- 朔州, 賈耽 古今郡國志云. "句麗之東南, 濊之西, 古貊地. 蓋今新羅北朔州.
- 삭주, 가탐의 <고금군국지>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동남쪽 예의서쪽은 옛 맥의 땅이다. 대개 지금 신라의 북쪽이 삭주이다.

## 김교수의 <고금군국지>에 대한 견해

- 賈耽이 <고금군국지>를 집필한 연대인 801년이 시대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 신뢰할 수 없다.

<고금군국지>는 621년부터 636년 사이에 쓰여진 『隋書』를 중히 여겨 참고하였으며 『수서』는 또한 『북사』를 깊이 참고하였다.

- 『북사』는 이연수의 아버지李大師(570~628년)가 편찬을 시작했으나 아들인 이연수에 의해 643년에서 659년에 완성한 저술이다.
- 『북사』는 『魏書』를 그대로 필사할 정도로 『위서』를 많이 참고한 책이다. 당시 『魏書』는 몇 종이 있었다. 『魏書』는 보통 500년대 중반에 쓰여졌다.

- 고위 관료를 두루 지낸 가탐의 <고금군국지>는 801년 당시대 까지 전해지고 있던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때로는 그 계통의 사람을 만나 묻기도 하며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 지금 누가 책을 쓰던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구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가?
- 가탐만 그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평한 것인가?

- 따라서 단순히 『고금군국지』가 801년에 쓰여져서 믿을 수 없다는 논리는 접어야 할 것이다.
- 자기논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료 자체를 부정하는 내로남불식 사고는 지양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 이런 논리라면 1145년에 쓰여진 <삼국사기>는 신뢰란 의미로는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을 것이다.

### (12). 한반도 중부지역에 존재하는 말갈(靺鞨)의 규정 문제

- 말갈관계기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29회, <신라본기>에 15회에 걸쳐 나타난다.
- 주로 한반도 중부지역의 말갈은 독자적으로 또는 낙랑이나, 고구려의 부용세력으로, 백제와 신라를 침략하고 있다.

- 이들의 출현지역을 보면 ‘예,와 ‘맥’의 주지(住地)와 겹친다.
- 이 말갈은 다산 정약용 이래 이미 위말갈(僞靺鞨)로 판명이 났다.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말갈이 아니다. 즉 가짜 말갈이다.

- 말갈의 전신인 물갈이 말갈로 중국정사에 나타나는 것은 <북제서> 무성제(武成帝)때인 563년의 일이다.
- 따라서 563년 이전엔 말갈이란 명칭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삼국사기>의 말갈은 무엇인가?

- 삼국통일기에 신라는 평양 원산이남지역을 통일하고, 북쪽엔 발해(渤海, 698년 ~ 926년)가 들어서게 된다.
- 발해의 주구성체는 지배층 일부 예맥계와 피지배층은 대부분 말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 다산이 지적했듯이 당대 신라인들은 신라와 백제를 공격해왔던 호전적인 북방세력을 발해의 건국과 맞물리며 말갈로 호칭하게 되었다.
- 훗날 김부식이 1145년에 <삼국사기>를 집필하면서 동일체인 예와 맥을 말갈로 오기하여 혼란을 자초하게 되었다.

-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에서 (백제본기)에서는 온조왕 2년(BC17년), (신라본기)에서는 지마이사금 14년(125)부터 말갈이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
- 이들의 출현지역을 통해 본 거주지역이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예와 맥의 주지와 일치한다.

- <백제본기>에 28회에 걸쳐 백제를 공격하고, 고이왕 때 우호관계를 맺기도 하는 말갈은 영서지역의 '맥계말갈'이고,
- <신라본기>에서 15회에 걸쳐 신라를 공격하는 말갈은 영동지역의 '예계말갈'이다.

### (13) '낙랑군 호구부' 에 나타난 동예의 호구수 문제

- 1992년 평양시 정백동(貞柏洞) 364호 나무 곁 무덤에서 발굴된 「樂浪郡初元四年 縣別戶口簿」가 발견되었으나, 2007년에 북한 손영종에 의해 <새로 발견된 낙랑목간> 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 발굴시점과 목간발표 사이의 시간적 갭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삼국지>의 찬자 진수는 태강(太康) 원년 (280)에 진(晉)이 오를 멸하자, 위·촉·오의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약 10년간 노력을 기울인 끝에 『삼국지』 65권을 찬술했다.
- 따라서 『삼국지』 <예전>에 나오는 인구 2만호는 진수가 사료를 수집하던 당시인 280년대의 인구를 말한다.

- 김교수는 <삼국지> (예전)에서 당시(AD280년전후) 예의 호수가 2만이라고 했는데, BC 45년에 작성된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에 따르면 동예에 해당하는 지역의 호수가 6,606호이기 때문에,
- 2만에서 현별 호구부의 동예 지역 戶數를 뺀 약 13,400호는 낙랑군과 동예의 사이에 낀 영서지역에서 찾고 있다.(김창석, 본책, 80쪽)

- 그렇다면 BC. 45년에 작성된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6,606호에서 AD 280년에 2만호이다.
- 약 300년이 흘렀으니,  
6,606호에서 2만으로 늘어난 것은 적정한 증가율이 아닌가?.

- 낙랑군은 25개현을 4개구역으로 편성했으며, 영동7현은 4구역으로, 단단대령 서쪽인 영서는 3구역(10238호)으로 편성되어 있어,
- 영서지역인 3구역에서 찾을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이성제, <낙랑군 호구부>, 2010, 동북아 역사재단, 214쪽)

### (14)증중실록의 맥국(貊國)인장

- 특진관 尹熙平이 아뢰기를, “북청의 無海臺에는 귀화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는 삼국시기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물리치고 6진을 설치하였지만 함경도는 본래 우리 땅이 아닙니다. 이른바 南沃沮는 곧 오늘의 烏道里(胡의 일종임)이고, 穢貊은 곧 오늘날의 강원도 땅입니다. 春川에서 貊國의 도장을 얻었다고 하니, 이곳이 예맥의 땅인 것입니다.(증중실록 권 80)

### 맥국과 「晉率善 貊 佰佰長」 銅印과의 관계

- 맥국의 인장을 1535년(중종 30) 10월 9일에 춘천에서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음은 맥국의 인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1차 사료로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윤희평은 맥국의 인장을 들어 춘천이 맥국의 땅임을 역설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홍성익, 2013, <맥국과 맥국 印章 「晉率善 貊 佰佰長」 銅印의 검토>, 춘주문화 28.)

- 아래 인장은 중국의 上海博物館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아래 인장이 상해박물관에 소장하게 된 연유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 없지만 맥국의 수장에게 사여했다는 것은 맥국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금석문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상해박물관 소장 - 한반도 소재 국가 인장



「晉率善韓佰長」 「晉率善韓佰長」 「晉率善 狛佰長」 「晉夫餘率善佰長」 「晉高句麗率善邑長」



「晉高句麗率善邑長」 「晉高句麗率善仟長」 「晉高句麗率善仟長」 「晉高句麗率善佰長」 「晉率善濊佰長」

### 예국, 맥국 - 印章



晉率善濊佰長



晉率善 狛佰長

羅福頤 主編, 故宮博物院研究室 璽印組編, 『秦漢南北朝官印徵存』, 文物出版社, 1987, 353~354等.

## 맥국 인장



晉率善獠伯長 駝紐 上  
獠又稱濊，或濊。三國志魏志  
東夷傳：濊，南與辰韓、北與  
高句麗、沃沮接，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此為晉  
給濊獠官印。

- 인장은晉나라가 고구려를 포함하는 한반도 지역의 여러 고대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했던 270~280년을 전후한 시기에 준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 이 인장이 어떤 경로로 상해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이로서 '獠國'이 존재한 것은 윤희평이 종종에게 아뢴 사실과 부합됨으로, 윤희평의 말은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 (15) 고고학적자료 : 물질문화

- 김교수와 다수 고고학계는 영서와 영동지역은 硬質無文土  
器와 凸· 呂字形 주거지를 공유하는 “中島類型文化”로,
- 토기와 주거 문화에서 보이는 공통성은 영서와 영동의 주민  
집단이 동일한 종족, 즉 예족에 속했다는 것을 물질 문화상  
으로도 입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중도유형문화론의 문제점

- 북한강 남한강 유역의 영서지역에 존재하는  
무기단식 적석총은 고구려의 무기단식이 환  
경에 의해 변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주로 강변에 있어서인지 천석(川石)으로 쌓  
아 필자는 천석적석총으로 부른 바 있다.
- 
- 김교수는 영서지역의 적석총이 구체적인 지적은 하지 않으  
면서, 좀 변화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변화해  
가는 것은 삼라만상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 박순발의 “중도문화유형론”은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의 공통문화로 硬質無文土器와 凸·呂字形 주거지를 들고 있다.
- 경질무문토기는 한강하류지역인 백제 마한영역에서도 발견 보고 되고 있다.
- 육각형주거지는 영서지역에는 있으나, 영동엔 없다.

### 영동과 영서지역의 이질적문화

- 동시기 영서지역엔 존재하는 구들문화가 영동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100년 이상 차이가 난다.
- 집자리에서도 영서지역엔 육각형 집자리가 있으나 영동지역엔 없다.

- 영서지역의 북한강 남한강 유역에 존재하는 당시대의 가장 특이한 문화현상인 적석총(돌무지무덤)은 영동지역엔 없다.
- 생활용구인 토기나, 집터는 편리 유용하다면 모방과 전파가 용이한 것들이다.

- 그러나 무덤양식은 죽음에 대한 의례임으로 전통사회에서는 쉽사리 바꿀 수 없는 지켜가는 전통적 문화현상이다.
- 그러므로 고대사회에서 묘제가 다른 사회를 같은 공동체로 보는 경우는 없다. 물론 오랜 기간 선진사회의 문화가 전파되어 변할 수는 있다.

- 영동 예와 영서 맥 사회는 선진과 후진사회를 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영동과 영서 두 집단은 동일 공동체로 설명될 수 없다.

### 춘천국립박물관의 긴급요청에 의강릉 하시동 적석총 유적 소개와 역사성 검토 - 홍영호

- 1932년 9월 22일자 동아일보에 신라시대 석조고총으로 소개된 것을 급조하여 탐사결과보고로 발표하게 하였으나, 알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 춘천지역의 유물발굴결과는 이 지역이 기원 후부터 3세기까지 낙랑에 속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낙랑에 의한 직접 지배가 아니라, 재지세력에 의한 간접 지배방식이었다.
- 백제 고이왕 이후인 3세기대 이후는 백제계 유물이 미미하여 '貊國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유지한 채 백제와 교류 교섭했음을 알 수 있다.

- 5세기대 이후 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서도 재지세력에 의한 간접지배방식이 통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 ‘貊國공동체’는 적어도 6세기대 초까지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고학적 유물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의 기로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 강릉 하시동 돌무지무덤에 대하여

- 1938년 9.22일 자 동아일보에 사진과 함께 실렸다.
- 이곳은 신라시대의 석조고총 수백개가 산재하여 때의 기구 등속이 부지기수로 발현되는 곳이라는데 수일전 강능도립의원 외과과장 박건원(朴乾源)씨의 편답으로 위의 신라시대의 거대한 석조 고분이 발현되어 학계에 크나큰 센세이션을 던지게 되는 터이라 함으로 기자는 씨를 따라 (재거 용지를?) 실지답사하였다.

홍영호, 2017, <강릉 하시동 돌무지무덤[적석총] 소개와 역사성 검토>





### 주요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百年에 무수한 고총들이 모두 평지화하여 사람의 뼈가  
집승의 뼈와 같이 산지사방에 수무룩한데,

돌로 쌓은 신라고총들만은 아직도 풍호근방 송림중에 산  
하야 원형을 갖추고 있다.

- 풍호일대 신라고총을 해마다 답사연구하는  
강릉공립농업학교장 장전겸이(江陵農校長  
長田○爾)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대단히 놀라운 발견이올시다. 이것은 틀림  
없는 신라고분이올시다. 부근 군소군총에서  
도 훌륭한 기구등속이 속출하는 형편이므로  
이 속에는 못본? 무엇이 있을 줄을 확신합니  
다.』하면서 분묘도(墳墓圖)를 감수하여주었  
다.

### 일부 고고학계에 대한 의문.

- '중도유형문화론'이 영서와 영동의 문화가 같은 유형의 문화로  
본다면 과연 양지역의 문화는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가?
- 영동과 영서는 경질무문토기와 움자凸자형 집자리 외에 무엇  
이 같은가?
- %로는 얼마나 될까?
- 생활에 편리한 도구나, 집모양은 따라서 변하기가 쉽다. 왜? ..  
편리하니까.

- 그러나 죽음에 대한 처리는 매우 엄격하고 전통적이며, 편리성을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묘제는 쉽게 변화하는 대상이 아니다.
- 적어도 고고학적 견지에서 동시대에 묘제의 형식이나 내용이 다를 때 이 다른 집단을 동질의 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
- 상식임으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 최성락(서울대)교수의 견해

- “중도유형문화”는 경질무문토기와 몸자凸자 집자리 등 한정된 자료에 의해 문화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 문화의 개념은 한정된 자료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도유형문화론’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최성락 교수)

- 무기단식적석총 뿐만 아니라, 육각형 집자리, 주거지의 구들 등은
- 영서지역에서는 많이 존재하지만, 동시대에 영동지역에는 보이지 않는다.

- 이렇게 가장 변화가 쉽지 않은 묘제부터 변화가 그리 어렵지 않은 집자리와 구들까지도 동시기에 공유하지 못하는 지역을,

박순발 본인도 주저하였듯이 “중도유형문화권”이라 하여 영동지역의 ‘동예’와 영서지역의 ‘영서맥’을 같은 문화권으로 묶어도 되는 것인가?

- 중도유형문화론은 토기와 집자리 일부가 같고, 생활에 유리한 구들문화가 동시기에 존재하지 않는 점, 육각형집터와 묘제가 달라, 영동과 영서지역문화의 교집합이 50%도 안된다.

- 따라서 “중도유형문화론”은 “영서맥”세력의 문화인 북한강 남한강지역의 문화로 한정하여 새로운 개념정리를 함이 합리적이다.

- 이 어설픈 “중도유형문화론”을 문헌적 고고학적 고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박순발의 설을 따라, 어느 문헌에도 존재하지 않는 “영서예”를 기정사실화하는 “영서예론자”들은
- 학계의 진실왜곡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 그들에게 실증 고증되지 않는 事實은 史實로 볼 수 없다는 랑케의 실증사학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 2. 영동 濊國說

### 1) 濊의 개념

• 예(濊)는 우리 민족이 국가를 갖기 이전에 불려지던 우리민족의 종족 명칭인 예, 맥, 한 가운데 하나로, 논란의 여지는 일부 있으나, 훗날 예는 주로 부여로, 맥은 고구려로, 한(韓)은 고조선의 주구성체로 인식 되어 왔다. 당 시대 이들의 활동무대는 만주를 중심한 지역이었다.

• 『後漢書』와 『三國志』로 부터 등장하는 한반도내의 '예' 는 그 이전 만주지역에 나타나는 '예' 와 구별되어 '동예' 로 불려져 왔다. 동예에 관한 기록은 이 두 사서 이외에 우리측 사료인 『三國史記』에 는 地理志를 제외하고 3회 밖에는 나타나지 않아 동예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 『三國史記』 地理志가 賈耽의 『古今郡國志』를 인용하여 江陵을 濊國으로 비정한 이래 『高麗史』를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측 지리지의 강릉을 濊國으로 비정해 왔다.

• 後漢과 三國時代(중국)까지는 존재한 한반도내 동해안지역의 東濊사회가 동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우리의 『三國史記』에는 거의 기록이 없고, 대신 같은 이지역에 靺鞨세력이 대체하여 나타나는 사실에 주목하여, 필자는 『三國史記』에 15회에 걸쳐 新羅와 관계하는 이 말갈세력을 동예세력으로 보아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삼국사기』의 말갈기록을 통하여 東濊史와 “江陸 濊國說” 의 실상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 이와 같이 만주지역에 거주하던 濊가 『後漢書』와 『三國志』에 이르면 한반도의 동해안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내의 濊를 지칭하는 최초의 중국 측 기록은 『三國志』 「魏志」 東夷傳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사료적 가치는 이미 높은 평가를 받아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濊는 南으로는 辰韓과 접하고 北으로는 高句麗 沃沮와 東으로는 大海에 이른다 지금 朝鮮의 동쪽 이 그 땅인데 戶數가 2만이다.…… 單單大山嶺의 서쪽은 樂浪에 속해있다. 都尉가 통치하고 있는 7縣은 濊人을 民으로 하고 있는데 후에 그 渠帥를 候로 封하였다. 지금 不耐濊가 모두 그 종족이다” .

• 여기에 나오는 東部都尉에 소속되었던 7縣은 東曉, 不而(不耐), 蠶台, 華麗, 邪頭味, 前莫, 夫租인데 李丙燾는 東曉는 德源, 不而是 安邊, 華麗는 永興, 邪頭味는 文川으로 비정한 바 있다.

• 그는 不而是 夫餘와 음운상 같은 것으로서 不耐를 말하며 夫餘에서 내려온 夫餘系로 파악하고 있다. 일찍이 鄭若鏞도 한반도 동부 해안지역의 不耐로 알려진 濊는 夫餘의 후예로 주장한 바 있다. 東部七縣 가운데 夫租 즉 沃沮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연맹체가 史上의 東濊세력이다.

• 『후한서』 역시 『삼국지』를 거의 답습하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후한이 삼국시대 보다 앞서나, 『삼국지』가 『후한서』보다 일찍 쓰여진 바, 동이전과 같이 당시대 인접지역의 사회상태를 알리는 기록은 『후한서』가 『삼국지』에 의존하고 있다.

• 『후한서』에는 “濊는 북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남으로는 진한과 접하고 서로는 낙랑에 이른다. 예 및 옥저 고구려는 본래 모두 조선의 땅이다” 라고 하여 서쪽에 낙랑이 있음을 첨언하고 있다.

• 이미 만주지역의 濊는 夫餘라는 國名을 갖고 있었으므로 後漢 光武帝 6년(AD30) 東部都尉가 폐지되면서 이지역의 연맹체를 『三國志』와 『後漢書』가 濊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 이로서 『三國志』와 『後漢書』가 가르키는 濊가 함경남도 일부지역과 강원도 일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三國志』와 『後漢書』가 편찬되던 시기에는 이미 濊가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중부지역과 동해안 일대로 고정되는데 濊傳에는 濊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록인 『三國志』의 高句麗傳에는 高句麗가 남쪽으로 朝鮮 濊貊과 접하고 沃沮傳에는 沃沮가 남으로 濊貊과 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後漢書』의 기록도 『三國志』와 같다. 두 사서의 濊傳에서 밝힌 濊貊의 위치와 高句麗傳과 沃沮傳에서 밝힌 濊貊의 위치는 동일하다. 따라서 두 사서의 濊傳은 예맥의 오기이거나 맥전의 누락으로 볼 수도 있다. 아마도 당시 맥은 낙랑의 예속 하에 있어 독립된 세력으로 보기가 어려워 독립적인 濊만 기록된 듯하다.

• 어쨌든 後漢代(AD25-220)와 三國時代(AD220-264)에 걸친 시기에는 樂浪 고구려, 옥저 그리고 진 한에 에워싸인 세력이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 존재한 것만은 틀림없다. 물론 이들은 “예” 라는 명칭으로 불려진 세력이었다.

## 2). 강릉 예국설과 동예와의 관계

• 東濊란 초기 漢四郡時 臨屯郡 관할지역으로서 後漢 昭帝 始元 5년(기원전 82)에 임둔군을 파하여 玄菟郡에 병합시켰다가 얼마가지 않은 昭帝 元鳳, 6년(기원전 75)에 玄菟郡治가 현재의 渾河상류인 新高句麗縣(興京 老城부근)으로 옮겨가자, 이 지역은 보다 가까운 낙랑군에 이속되어 樂浪東部都尉 관할의 嶺東七縣이 되었다가 後漢 光武帝 6년(AD 30)에 행해진 都尉 폐지로 인하여 자치력을 얻게 된 곳이다.

• 당시 諸縣의 長들은 漢으로부터 懸侯의 封爵을 받고 候國이 되었다

•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東部都尉에 소속되었던 嶺東七縣은 東曉, 不而(不耐), 蠶台, 華麗, 邪頭味, 前莫, 夫租인데 『漢書』의 補注에 의하면 東曉가 臨屯郡의 治所였다.

• 夫租는 沃沮로서 이 七縣이 東濊와 沃沮로 나누어 진다. 朝鮮朝의 학자들은 임둔의 治所인 東曉를 江陵으로 보아, 주로 臨屯을 江陵을 중심으로 한 江原道 일대로 보거나, 江原道에 咸鏡南道의 남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보아왔다.

• 『高麗史』 地理志 溟洲條에는 溟洲는 원래 濊國으로 臨屯의 땅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 ‘溟洲는 원래 濊國(鐵國 또는 藜國이라고도 한다.)인데 漢 나라 武帝가 군대를 보내어 右渠를 정복하고 그곳에 4郡을 설치하였을 때 臨屯으로 하였고 高句麗는 河西良(何瑟羅州라고도 한다.)이라고 하였다.

• 『世宗實錄地理志』에도 “江陵大都護府는 본래 濊의 古國인데 漢 武帝 元封 2년에 장군을 파견하여 右渠를 토벌하고 4군을 정할 때 임둔이라하였고”, 『東國輿地勝覽』 역시 강릉을 예국이며 임둔의 옛 땅으로 보고 있다.

• 이와 같은 관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三國史記』가 인용하고 있는 賈耽의 『古今郡國志』이다.

• 『三國史記』 地理志는 賈耽의 『古今郡國志』를 인용하여 江陵의 전신인 溟洲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본시 高句麗의 河西良(何瑟羅라고도 함)인데 후에 新羅에 속하였다. 賈耽의 古今郡國志에 이르기를 ‘지금 新羅 北界인 溟洲는 대개 濊의 古國이라.’ 하였다. 前史에는 夫餘를 濊의 땅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善德王때에 小京을 설치하고 任臣(小京의 장관)을 두었다.”

• 『三國史記』는 賈耽의 古今郡國志를 인용하여 溟洲를 濊의 古地로 보고 있다. 溟洲를 주목하여 濊의 故地로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賈耽이 『古今郡國志』에서 前史 즉 『三國志』 이전에 기록된 史書에서 夫餘를 濊의 땅이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賈耽(AD730-805)이 생존하던 당시에는 滿洲지역에 자리했던 濊의 개념은 이미 이 지역에 자리잡은 夫餘 高句麗 등이 멸망된 이후 이므로 濊는 후대인 삼국시대까지 존재했던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濊로 고정되고 강릉이 중심적인 濊의 옛 땅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부식 등 삼국사기의 찬자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어쨌든 『三國志』 이래 함경남도와 강원도 동해안 지역으로 인지되어 오던 濊는 특히 『古今郡國志』로부터 溟洲(강릉)가 濊의 옛 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강릉을 濊의 故地로 부각시킨 『古今郡國志』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된다. 『三國史記』가 인용하고 있는 가장 원사료인 賈耽의 『古今郡國志』는 지금까지 그 사료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는 역사지리서이다. 中國의 金靜庵은 그의 中國史學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賈耽의 地理學은 다만 圖의 製法만을 究心한 것이 아니라 治革에 극히 주의하였으며 古郡國을 검게 제하고 지금 州縣을 붉게 제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바뀜이 없다. 그가 撰한 ‘古今郡國縣道 四夷述’은古今을 모두 갖추고 있고 因革을 명확히 하고 있다. 地方總志의 善本이라 할 수 있다. 隨代官撰인 ‘區宇圖地’ 唐 魏王泰가 그 府僚에 명하여 合撰한 ‘括地志’를 더욱 중요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는 地理治革學을 연 인물이다”

•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賈耽의 『古今郡國志』는 그 史料的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기본적으로는 賈耽의 설을 받아들여 東曉를 江陵으로 보아 江原道 일대와 함경남도 일원을 臨屯의 고지로 보고자 한다.

• 그러나 『三國史記』 地理志 이래 『高麗史』 地理志를 비롯한 『東國輿地勝覽』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모든 역대 지리지의 賈耽의 설을 신봉하여 江陵을 臨屯의 중심지 뿐 만 아니라 東濊의 중심지로 오인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江陵은 漢四郡時 臨屯의 治所였으나 樂浪郡 東部都尉와 東濊의 중심지는 아니었다.



• 朝鮮 肅宗朝의 李世龜는 그의 『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設』에서 臨屯을 江陵을 중심으로 大關嶺 東西의 강원도 諸郡을 포함하여 西로는 關西 등지의 樂浪郡과 연결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의 이 견해는 臨屯의 영역을 강원 영서지역까지 확대하여 봄으로서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臨屯 15縣의 배치공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 『文獻備考』 漢西郡條에는 “臨屯은 대개 지금의 강원도 경기도 땅으로 漢 나라 始元 때에 臨屯을 樂浪에 합하였고 그 屬縣에는 帶方 東曉 列口 吞列이 있다. 帶方이란 帶水가 지나가는 곳인데 帶水는 지금의 臨津江을 일컫는 것이니 아마 바로 임둔일 것이다.” 라고 하여 臨屯을 경기도 땅까지 보고 있다.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李丙燾가 臨屯을 함경도의 대부분과 강원도의 북단으로 보고 東曉를 德源으로 비정한 데 반하여, 池內宏은 東曉를 江陵, 不而를 永興, 夫租를 咸興으로 비정하였다. 池內宏은 濊를 보다 남쪽으로 내려 생각하고 있다. 濊의 활동 영역이 남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은 1966년 慶北 迎日 지역에서 출토된 “晉率善濊伯長印” 이라고 새겨진 銅印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이는 晉代에 東濊의 한 首長에게 伯長의 관직을 제수하면서 보내온 印長으로 약간의 다른 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 “晉率善濊伯長印” 은 신라초기 기사의 신빙성 문제가 있으나 『三國史記』 新羅本紀 南解 次次雄 16년조에 “北溟人이 밭을 갈다가 濊王印을 주어 바쳤다” 는 기록의 事實性을 입증해 준다 하겠다.

• 또한 『三國遺事』 馬韓條에도 “溟州는 옛 濊國인데 野人이 밭을 갈다가 濊王印을 얻어 바쳤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南解 次次雄 16년조의 “北溟人이 濊王印을 얻어 헌상했다” 는 기록에 근거한 듯하다. 『文獻備考』 關防條에는 江陵 邑城의 동쪽에 둘레 3천4백80척의 “濊國古城” 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비추어 강릉지역이 濊의 영역이었음은 틀림없다.

• 따라서 濊의 땅인 東部七縣 가운데에 강릉지역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東曉 즉 江陵 지역은 臨屯郡의 治所로 있다가 臨屯郡이 없어지면서 玄菟郡에 편입되고 다시 玄菟郡이 만주지역으로 옮겨가면서 樂浪郡에 편입되었다가 AD32년 樂浪郡 東部都尉가 폐지되면서 독립되어 不而 華麗縣 등과 더불어 濊라 불려진 것 같다. 漢은 이들 首長을 懸候로 봉하게 된다.

• 그러나 臨屯郡이 폐지되고 난 후 樂浪郡 東部都尉의 治所는 不耐(不而)로서, 不耐는 東濊지역이 漢으로 부터 이탈하여 자치력을 얻고 나서도 東濊사회의 盟主的 위치에 있었다. 東濊縣 다음으로 열거된 不而는 『漢書』地理志 樂浪郡 不而縣條에 “東部都尉治” 라고 註記 되어 있고, 『三國志』魏志 東夷傳에는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라고 했으니 不而와 不耐가 같음을 알 수 있다. 李丙燾는 安邊의 古名인 比列忽의 比列이 不而 不耐와 音이 유사하여 不而를 安邊으로 보았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 邪頭味는 『說文解字』에 鯢魚와 魴魚의 產地로 濊邪頭國을 들고 있어 邪頭味國을 지칭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지역은 동해안의 東濊 不而와 인접한 곳으로 추측된다. 華麗는 『三國史記』에서도 不耐와 병칭되어 不耐와 인접한 곳으로 볼 수 있다. 永興의 古名인 和寧이 華麗와 音이 유사하여 李丙燾는 永興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不耐와 가까운 곳으로 볼 때 가능한 비정으로 생각된다. 前莫과 蠶台 2縣은 비정되지 않은 곳이나 東濊 不而 華麗와 인접한 함남지역과 강원 영동지역으로 사료된다.

• 東部都尉 嶺東七縣이 漢으로부터 독립되면서 이룩된 東濊사회는 不耐濊가 주축이 되어 함남지역과 강원 영동지역에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릉 지역은 東濊에 포함된 지역이긴 하나 盟主的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 東濊사회는 諸邑落에 候 邑君, 三老 등이 있어 下戶를 통솔하였으며 특히 東濊의 맹주격인 不耐候國은 功曹 主簿 등 官衙를 두었다. 그 뒤 『三國志』濊傳에는 東濊가 漢末에 高句麗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東濊가 高句麗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음을 의미 한다. 이때 이들은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존재했다.

• 濊傳에는 “正始 6년(AD245)에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이 領 동쪽의 濊가 高句麗에 복속하자 군대를 일으켜 정벌하였는데 不耐侯 등이 고을을 들어 항복하였다. 이 침략은 正始 3년에 高句麗의 東川王이 西安平을 공격한데서 비롯되었다. 正始 8년에는 魏의 조정에 와 조공하므로 不耐濊王으로 봉하였다. 不耐濊王은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계절마다 郡에 와서 朝謁하였다.” 고 하여 東濊가 高句麗에 복속되었다가 魏에 복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그러나 복속된 뒤에도 不耐濊王의 직을 받고 유지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의 복속의미는 독립사회의 틀을 유지한 반독립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正始 6년의 정벌이 고구려 동천왕의 서안평 공격에서 비롯된 유명한 동방정벌이다. 이 正始 8년의 기사 이후 “동예” 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 3. '濊貊'의 實體는 『三國史記』의 靺鞨이다.

• 이와 같이 濊貊는 중국의 史書가 列傳을 만들 만큼 상당한 세력으로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정작 우리의 『三國史記』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얼마 없다. 이것은 『三國史記』가 이들을 다른 명칭으로 대체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만약 『三國史記』에 濊이나 東濊가 위치했던 지역에 다른 명칭의 세력이 같은 시기에 등장한다면 그 다른 명칭과 濊이나 東濊는 동일한 하나의 실체일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바로 이 東濊세력의 住地에 靺鞨이라는 명칭이 대체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靺鞨관계 기사의 분석을 통하여 東濊가 곧 『三國史記』의 靺鞨임을 알 수 있다.

• 東濊로 생각되는 靺鞨이 『三國史記』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新羅 祗摩泥師今 14년(125년)에 新羅의 北境을 쳐들어온 것인데, 이후 수차례에 걸쳐 東濊系 靺鞨세력은 신라에 출몰하고 있다.

• 말갈이 신라의 北邊 北境을 침입한 기록은 祗摩王 14년과 奈解王 8년, 奈勿王 40년, 慈悲王 11년, 炤知王 2년, 3년의 기사로서 6회에 걸쳐 나타난다.

• 奈勿王 40년(385)의 “말갈이 북변을 침공하자 悉直에서 대패 시켰다”는 기사는 당시 悉直이 말갈과 일진일퇴하던 지역임을 알 수 있어 이때까지 江陵지역은 東濊系 말갈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奈勿王 40년(385)과 慈悲王 11년(468년)의 말갈 출몰지역은 悉直之原과 悉直城으로 현재의 삼척지역이다. 4세기말에서 5세기까지 高句麗의 세력권 하에 있던 靺鞨과 新羅가 悉直에서 충돌하는 것으로 미루어 한 때 이 지역이 東濊와 新羅의 경계 지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 그 후 新羅本紀 奈勿泥師今 42년(387)조에 “北邊 何瑟羅에서 가뭇과 누리가 있었다”는 기사에 의하면 이 때의 하슬라는 당시 고구려에 부속된 하슬라주의 일부인 울진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慈悲王 11년 기사에서 봄에 高句麗와 靺鞨이 悉直城을 습격하자 新羅는 15세 이상의 何瑟羅人을 동원하여 泥河에 築城하고 있다. 이 기록대로 라면 何瑟羅(江陸)는 이미 慈悲麻立干 때에는 新羅에 귀속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何瑟羅가 신라령이었다면 말갈이 하슬라를 그냥 통과하여 그 아래 지역인 悉直을 습격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 이 점은 강릉지역이 고구려 미천왕 14년(313년)에 고구려에 의해 하서강 또는 하슬라라고 불리었다는 점과 高句麗 長壽王의 남진(5세기 후반)을 고려할 때나 『三國史記』 地理志의 溟洲는 본시 高句麗의 河西良이라는 점을 생각 한다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이 시기 신라의 북방한계는 실직(삼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新羅本紀 訥智麻立干 450년 7월의 “高句麗의 邊將이 悉直原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何瑟羅 城主 三直이 군사를 내어 그를 살해 했다” 는 기사에 의하면 이미 450년대에 新羅는 하슬라 지역에 城主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高句麗의 邊將이 何瑟羅가 신라령일 경우 보다 남쪽에 위치한 悉直에서 사냥을 하였다는 점이 수긍하기 어려워 新羅本紀의 이시기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 이 역시 신라와 고구려의 부용세력으로서의 동예는 하슬라와 실직 사이에 경계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삼국시대 신라의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인 주(州)는 505년(지증왕 6) 삼척 지역에 실직주(悉直州)를 둔 것이 처음이다. 이어 512년 하슬라주를 두고 있어, 실직을 두고 고구려와 각축하던 신라가 지증왕대에 이르러 실직을 명실상부하게 영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어 512년 하슬라주에 군주가 설치되면서 강릉지역은 명실상부한 신라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 祗摩泥師今 14년(125년), 慈悲泥師今 11년(468년), 炤知麻立干 3년(481년), 18년(496년)의 잣은 靺鞨의 출몰 지역으로서 東濊와 新羅의 국경으로 사료되는 泥河 기사는 泥河의 위치 비정 문제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祗摩泥師今 14년조의 기사는 당시 신라의 위치나 국세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하지 않기로 한다.

• 泥河의 위치에 대하여 安鼎福은 『東史綱目』에서 “泥河亦在德源界” 라 하여 덕원으로 추측한 바있는데 松井等과 鳥山喜一역시 이를 계승하여 德源 이북의 龍興江으로 비정하고 있다. 池內宏은 신라본기의 泥河를 불신하면서도 永興과 定平 사이로 비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唐書』 渤海傳에 기재된 발해가 남북으로 泥河를 경계로 新羅와 접하고 있다는 점에 집착하여 泥河의 위치를 북쪽으로 올려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 『唐書』의 泥河는 大同江이라는 설이 있고, 본고 역시 신라와 발해의 국경선으로서의 泥河는 西海岸 大同江說을 따르고자 한다. 丁若鏞은 泥河를 『唐書』와 『三國史記』의 泥河로 동일시 하여 강릉의 북쪽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실학자들이 『唐書』와 『三國史記』의 泥河를 동일한 지명으로 생각하는 데 반하여 津田左右吉은 각기 다른 두 개의 泥河로 보고 있다. 그는 『唐書』의 泥河에 대해서는 松井等の 龍興江說을 인정하거나 朔庭那(安邊)의 남대천이나 咸興의 城川江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 신라본기의 泥河에 대해서는 영춘, 단양부근을 돌아 충주 동북방으로 흐르는 남한강 상류로 비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정선의 옛 이름인 仍買縣의 仍음이 泥와 유사한 점을 들고 있다.

• 『新唐書』에 실려 있는 泥河는 신라와 발해가 공존한 남북조시대의 것이며 『三國史記』 신라본기에 실려 있는 泥河는 삼국정립기의 것으로서 그 시대도 서로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庸書』와 『三國史記』의 泥河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지명의 移動이나 同名은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는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이 두 곳의 泥河로 이해하고자 한다.

- 그러나 津田의 南漢江 상류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慈悲麻立干 11(468년) 년조의 15세 이상 何瑟羅人을 데려다가 泥河에 築城했다는 점과, 후술하겠지만 炤知麻立干 3年條의 신라를 공격하는 靺鞨세력은 동해안지역의 동예세력인데 무엇 때문에 꼭 트인 해안 통로를 놔두고 太白山脈 동서로 넘어 산간 내륙지방인 정선을 통하여 공격하였겠는가. 그리고 인구가 희소한 정선 산골이 무엇 때문에 新羅에게 靺鞨을 상대하는 전략적 요충이 될 수 있는가가 설명 되어져야 할 것이다.
- 何瑟羅人을 데려다가 泥河에 축성하기 위해서는 泥河와 何瑟羅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야 하고 泥河는 적당한 인구를 갖춘 전략적 요충이며 말갈 고구려와 국경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津田의 泥河=南漢江 上流說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 祇摩泥師今 14年條의 泥河 문제는 AD. 125년의 경주세력이나 千寬宇의 辰韓系 移動說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泥河의 위치 규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慈悲麻立干 11年條 기사에서 봄에 高句麗와 靺鞨이 悉直城을 공격 하자 15세 이상 何瑟羅人을 징발하여 泥河에 축성하고 있다. 東濊系靺鞨은 고구려의 附庸 세력이며 여기서 泥河築城은 悉直城의 습격시간과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 泥河 축성은 悉直城을 습격 당하고 나서 泥河 인근 부근에 쌓은 성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泥河는 悉直城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何瑟羅人을 징발한 것으로 미루어 何瑟羅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신라와 고구려에 부용된 동예계말갈세력의 경계가 실직 이북지역임을 말해주는 자료로 생각된다.

- 고구려는 자비마립간 11년 말갈(靺鞨)의 1만 군사와 함께 신라의 실직성(悉直城: 삼척)을 침략한 후 동해안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신라 북변을 공략하였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이 증대되자 자비마립간은 백성을 징발해 니하(泥河)·삼년산성(三年山城: 지금의 충청북도 보은)·모로성(耄老城)·일모성(一牟城)·사시성(沙尸城)·광석성(廣石城)·담달성(沓達城)·구례성(仇禮城)·좌라성(坐羅城) 등 일선지대의 요새지에 새로이 산성을 축조하였다. 이 시기 니하에 신라가 산성을 축조한 것은 니하가 말갈과의 경계였음을 반영한다.
- 정약용은 단지 설명 없이 泥河의 위치를 泥川水로 비정하고 있다. 현재에는 강릉 북쪽 방면에 泥川水 또는 泥川, 泥河 등의 川名은 없다. 현재 강릉 북쪽 주문진 아래에는 오대산 줄기와 진고개에서 발원하여 연속으로 흐르는 連谷川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連谷縣은 江陵大都護府의 북쪽 30리 거리에 있다. 大東輿地圖에는 連谷川이 되는 두 개의 원류 가운데 하나가 泥峴(1072m)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泥는 진흙, 진창, 질다는 뜻으로 현재 泥峴 명칭은 사라졌으나 泥峴과 같은 뜻인 진고개로 불리워지고 있다. 따라서 泥河는 泥峴(진고개)에서 발원하기도 하는 連谷川으로 보고 있다.

• 炤知麻立干 3年條에서 “高句麗와 靺鞨이 북쪽 변경에 들어 와서 狐鳴 등 일곱 城을 빼앗고, 다시 彌秩夫로 진군하였다. 百濟 및 伽倻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방어하였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지 그들을 泥河 서쪽까지 추격하여 격파하고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고 하였는데, 여기서 高句麗와 靺鞨이 泥河쪽으로 패주 한 것을 보면 靺鞨의 근거지가 泥河 근처임을 알 수 있다.

• 新羅가 북쪽 말갈세력과 충돌한 지역으로 泥河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東濊의 거주지 역시 泥河이 북지역임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니하는 실직 바로 위의 강이 되어야 한다.

• 炤知麻立干 18년(496)조의 “高句麗가 牛山城을 공격하여 오자 장군 實竹이 나아가서 泥河 위에서 격파하였다” 는 내용이 있고, 高句麗 本紀 文咨明王 5년조에도 “新羅의 牛山城을 침입하자 羅兵이 泥河에 나와 마주쳐 패했다.” 는 기록이 있다. 新羅는 북쪽 경계선을 놓고 高句麗와 泥河에서 각축하고 있다. 이 牛山城도 泥河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따라서 고구려에 부용된 동예계말갈세력과 신라는 실직과 니하에서 부딪치고 있어 니하는 실직의 바로 위 하천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니하의 위치를 두티산에서 발원하여 북평산업단지와 동해항 사이로 흐르는 “전천” 으로 비정해 보고자 한다.

• 그러나 훗날 武烈王 5년(658)의 기사에서 “왕이 하슬라의 땅이 말갈과 연결하여 인민이 편할 수 없어 京을 파하고, 州를 설치하고 그것을 鎭으로하여 都督을 두었다” 는 내용에서 보면 통일신라기에 이르면 한반도내 말갈의 개념이 시간과 더불어 복잡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기는 말갈의 개념이 강릉 이북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통일신라기에 이르면 강릉지역이 東濊系 말갈세력의 범주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 「三國史記」에는 濊族에 관한 기사가 靺鞨이 아닌 원형 그대로 기록된 사례가 유일하게 한차례 기록되어 있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陽原王 4年(548)條의 “봄 정월, 濊의 군사 6 천 명으로 百濟의 禿山城을 공격하였다. 新羅 장군 朱珍이 百濟를 도왔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는 내용이다.

• 이와 동일한 내용이 新羅 眞興王 9年條와 百濟 聖王 26年條에도 기록되어 있다. 禿山城은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이었을 뿐 아니라 善德女王 때에는 百濟와 新羅의 국경을 이루던 곳으로 百濟의 장군 于瓘가 新羅의 禿山城을 공격하고자 했던 사실이 있었던 곳이다. 이 禿山城은 百濟 溫祚王 11년에 樂浪을 방어하기 위하여 抱川柵과 함께 세운 禿山柵으로 생각된다. 樂浪은 春川지역의 貊系靺鞨 세력이다. 禿山城은 百濟의 동쪽으로 아마 眞興王대에 신라령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은 太白山脈 以東지역이고 당시 동원 병력이 대규모인 6천인 것으로 미루어 高句麗의 세력하에 있던 貊系靺鞨과 濊系靺鞨이 망라된 세력으로 생각된다.

• 실직(삼척)의 북쪽 지역에 신라와 연접해 있던 東濊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대신 靺鞨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三國史記』에서 동에세력이 말갈이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라관계 말갈 기사는 15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 신라와 관계하는 말갈이 동에세력이라고 생각된다.

• 이 儒理泥師今 3년초의 낙랑 침입 기사를 제외한 4세기 초까지 신라를 침입한 靺鞨세력은 독자적인 東濊세력이었으며 奈勿王 40년(385)이후의 것은 高句麗에 附庸化된 침입이었다. 결국 동에게 말갈의 신라 침입로는 泥河를 중심한 실직(삼척) 이북지역을 상정할 수 있다. 필자는 新羅를 침입한 靺鞨을 泥河 이북의 강원 동북부 지역의 東濊 세력으로 보고자 한다.

• 『三國史記』의 5세기대 史料를 신빙한다면 江陵 지역의 東濊세력은 지증왕대인 6세기 초반경에 新羅에 편입되는 것 같다. 그러나 통일기의 한반도내 말갈의 개념은 상당히 복잡하여 강릉 이북의 연곡천을 북방한계로 설정하고 있다. 즉 통일기의 말갈 명칭은 不耐濊 계통의 靺鞨세력으로 한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들 靺鞨세력은 삼국통일기인 7세기말까지 낙랑이나 고구려에 부용되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독자성을 유지한 채 존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서 인용한 太宗 武烈王 5년(658년)의 “何瑟羅의 땅이 靺鞨과 연접해 있다” 는 기사와 통일한 시기의 통일신라가 설치한 九誓幢 가운데에 靺鞨人으로 구성된 黑金誓幢의 존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 고고자료를 통해 본 예맥역사문화권의 시공간적 양상

최종모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 I 예맥의 인식

### 1. 국내 기록에서 보이는 인식

- 삼국사기 : 가담의 '고금군국지'  
고구려의 동남쪽, 예의 서쪽, 옛 맥의 땅
- 삼국유사 : 옛 우수주, 옛 백국, 평양성이 맥국
- 고려사 : 춘주, 맥국
- 세종실록 : 본래 맥국땅
- 서거정의 필서거정의 '필원잡기', 성현의 '용재총화', 영사 김안로, 숙종 때 상소문, 이익의 '성호사설', 안경복의 '동사강목', 이 밖에도 '춘천읍지', '동국여지지춘천도호부', '여지도서 춘천현', 이유원의 '임하필기', 고종의 춘천유수 임상준에게 내린 교서, 일제강점기 '춘천군향토사료', '춘천풍토기', 등 많은 기록에서 춘천의 맥국을 기른

### 2. 중국 기록에서 보이는 인식 - 先秦, 漢, 後漢

- 중국 기록에서 보이는 이름 중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의 종족들을 '동이족'이라는 데 두리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韓, 濊, 貊, 貉, 濊貊' 등으로 기록
- '시경' 대아-한력 : "... 맥을 추격하여..."
  - '주례' 주판-사구 : "... 맥에도 120명이다..."
  - '대제례기'-예찰 : "탕왕이... 맥, 사이에 미쳤다."
  - '관자' 소광 : "제 환공이... 예·맥에까지 이르렀다."
  - '맹자' 고자 : "무릇 맥은 북방에 거주하는데..."
  - '전국책' 진책 : "... 북쪽으로는 호, 맥..."
  - '산해경' 해내서경 : "맥국은 한수의 동북쪽에 있는데... 연에 가까웠는데 그들이 멸망시켰다."
  - '순자' 강국 : "진은... 맥과 이웃한다."
- 이상의 선진시대 기록에서는 단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한대 이후의 기록에서는 대부분 '예맥'이라는 연칭으로 기록되고 있다.

- ‘사기’ 화식열전 : “연은……예맥……이로움과 이어져 있다.”
- ‘사기’ 흉노열전 : “……동쪽으로는 예맥·조선과 접하였다.”
- ‘한서’ 고제기 : “4년 8월에……북쪽의 맥과 연의 사람들이……”
- ‘한서’ 지리지 : “……모두 조선, 예맥, 구려란 만이다.”
- ‘한서’ 식화지 : “땡오가 예맥과 조선을 치고 창해군을 설치하였다.”
- ‘후한서’동이 고구려전 : “구려는 일명 맥이라 하는데 별종이 있다……소수맥이라 한다 ……맥궁이 그것이다.”

중국 기록에서 보이는 예·맥 혹은 예맥의 연칭은 중국에서 바라보는 동·동북·북쪽의 변방이 되고 중국의 북방지역과 만주지역에 있는 종족 명칭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요동반도와 길림지역을 포함하고 대릉하 유역에서 서북한 지역까지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족집단에 대한 지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예맥에 대한 관점이 한반도 내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연구자들의 인식

-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원삼국)에 대한 인식

전 예맥에 대한 시기를 ‘청동기시대’로 설정하고 기원전 7세기경으로 ‘동이족’ 즉 ‘예맥계’와 ‘한계’가 동이족의 테두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중국사와 한국사 두 역사의 문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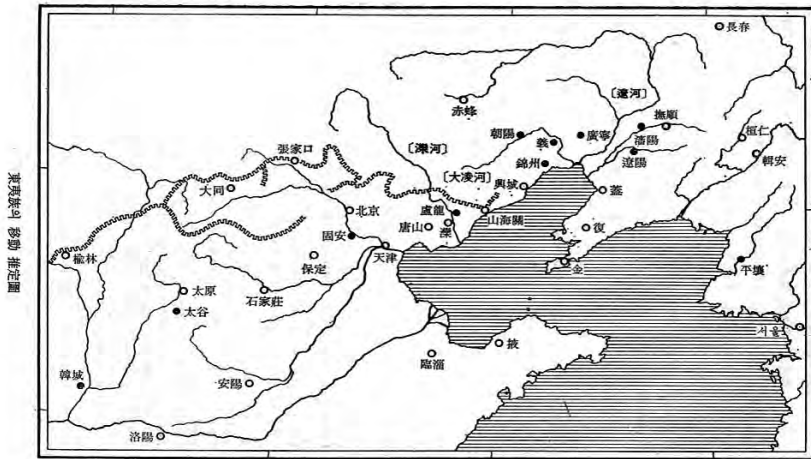
이들의 출자는 중국 협서성 기주의 서쪽 즉, 중국의 서북부에 있다가 북방계 기마 유목민의 압박을 받아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하북성 교안현 부근에 이른 후, 한 갈래는 산동반도 쪽으로, 다른 한 갈래는 동진하여 발해만을 따라서 요동지방에 이르고 마침내 한반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견해(金庠基, 1948)

고조선, 특히 기자조선의 역사적인 입각점을 동이족의 이동과 관련시켜 보는 견해, 은왕조의 동이계통으로 보고 기자족은 화하계(주계)로 보는 설(千寬宇, 1974;傅斯年, 1935)

대동강 유역으로의 이동은 청동기문화의 개시 또는 국가의 성립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기백·이기동, 1982)로 이어진다. 이는 대동강유역의 청동기문화의 출자와 관련한 북방계 청동기문화에 토대를 두었다는 오류를 가지게 되어 수정이 불가피한 문제를 노정한다.

무씨사당의 화상석과 관련한 문제들로 중국 산둥, 만주 요양, 한반도 평양지방이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공통된 문화내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할 여지가 있다(金庠基, 1955:1974).

동이족의 이동 추정도(이기백·이기동, 1982에서 인용)



먼저 예와 맥을 구분해서 맥국은 춘천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의 성립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조동걸(1967), 김택균(1983;1985;1996;1997), 김용백(2010;2013), 김규호(2000) 등이다.

심재연(1998;1999;2002;2004)이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접근을 하지만 맥과 예에 대한 뚜렷한 구분에 대한 접근은 아니다.

이홍중(1998)은 말갈과 중도식토기 집단이 동일한 집단이며 예도 같은 집단이라고 본다

금경숙(1999)은 중도를 중심으로 춘천에 맥국이 있었다고 보며

노혁진(2000)은 춘천권에는 맥국, 영동에는 예국과 실직국 등의 초기국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지현병(1999)은 예와 맥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정연우(2000)는 예와 맥의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며

우두산성에 주목한 유재춘(2006;2013)의 견해와 문헌사학계의 연맹왕국단계로 맥국을 설정한 최복규(2005;2006;2007;2010;2013)의 견해가 있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맥국에 대하여 ‘영동예’와 ‘영서예’로 분리해서 보는 견해(문안식, 1996;1998, 김기섭, 1991)와 이를 구체화한 김창석(2008;2009;2014)의 견해가 있다.

또 춘천지역의 집단을 ‘위말갈’로 본 정약용의 견해를 받아들여 함경도 남부와 강원도 북부의 동예로 보는 주장(유원재, 1977; 이강래, 1985)

고구려가 동원한 말갈로 보는 견해(선석렬, 1996) 등이 있다.

최해룡(1997)과 윤용구(1999) 그리고 윤선태(2001) 등은 ‘신분고국’과의 관계에서 예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 기록에서 기원전 3세기 동요하 지역의 토착집단과 문화가 ‘貊國’과 관련이 있다는 오강원의 주장(2011)과

기원전 7세기 ‘예맥’의 존재를 주목하면서 진개의 공격 이전에 대체로 요동지역에 ‘예맥’이 거주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준형, 2012).

2018년과 2019년에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와 국립춘천박물관이 공동개최한 강원고대문화연구심포지움이 각각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고대 강원의 대외교류’라는 주제로 열려 지금까지의 ‘예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II 시간의 추이와 변화

### 1. 기원전 4세기의 변화 : 철기의 도래

기원전 4세기 한반도에 전국계 철기문화가 도래한다. 중국의 철기는 기원전 6세기부터 사용되어 기원전 3세기 무렵에 본격적인 철기를 사용

한반도에는 기원전 4~3세기에 전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 명도전 등의 화폐가 평북 강계 화경면 길다동, 자성군 서해리, 평북 위원군 송정면 용연동, 영변군 오길리 세죽리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특히 세죽리유적에서는 명도전과 철부, 철검, 철도자 등의 철제품이 공반되었다(藤田亮策, 1938). 이들 연나라 장군 진개의 요동 경략의 결과로 연의 세력이 청천강 유역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尹武炳, 1973;1976).

철기시대의 도래 이후, 기원전 4~3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경까지의 1기와 기원후 1세기에서 4세기까지를 2기로 보고 전자를 초기철기시대, 후자를 철기시대로 시기구분하고 이들 2기의 고고학적 근거로 김해 봉황동 회현리유적을 두고 2기를 김해시대 혹은 원삼국시대라 보는 견해가 있다(濱田耕作 외, 1923;藤田亮策, 외 1947;金元龍, 1957;崔夢龍, 1972;有光教一, 1954;樞本杜人, 1954;1980;1957;1957). 1기의 초기철기문화는 세형동검과 세문경을 지표로 철기와 공반하고 있으며, 2기의 철기문화는 중국 한나라의 영향으로 한식계 철기문화가 고고학적 지표로 확인된다.

### 2. 기원후 1세기의 변화 : 예맥의 문제

강원도 지역의 예맥에 대한 연구는 2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예맥계문화에 대한 문제로 수렴이 가능한데 그 이전 시기의 고고학적 근거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무문토기와 원형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시기의 것으로 구체적인 국가의 성립이나 정치체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할 만한 근거로는 부족하다.

기원후 1세기를 지나면서 중국 한나라 군현제의 영향으로 구체적인 고고학적 근거들이 나타나는데 공간적으로는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지역 그리고 충청북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몹, ㅅ’자형태의 주거지가 나타나고 내부시설로 온돌이 등장한다. 낙랑의 한식계 토기들이 공반되며 회색색의 타날문 토기들이 광범위하게 출토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 시기에 국내와 중국 기록에서 보이는 ‘예, 맥’의 국가 또는 정치체의 성립을 놓고 많은 이견들이 나타난다.

### Ⅲ 시간적 추이와 예맥의 공간적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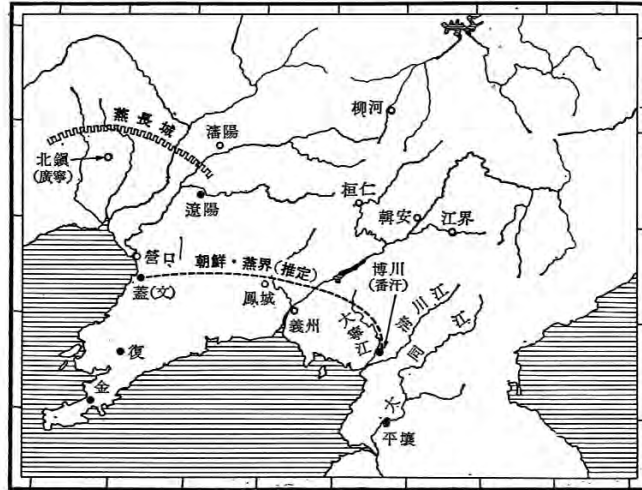
#### 1. 기원전 4세기 이전의 예맥

박준형(2018)의 견해에서 기원전 7세기 대릉하 유역에서 전개된 전기비파형동검문화를 근거로 이 문화의 주체가 바로 ‘관자’ 소광편에 언급된 예맥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시기 예맥의 공간적 점유는 난하 동쪽과 요하 서쪽 사이의 대릉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쪽 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는 이기백·이기동(1982) 등의 문헌사학자들의 견해와 유사하며 이 예맥이 정치적으로 발전한 것이 ‘고조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까지는 아직 예와 맥의 구분이 없이 예맥이 같은 축속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 2. 기원전 4세기 이후의 예맥

기원전 4세기 연의 장수 진개의 요동 경략과 관련하여 연의 세력이 청천강 유역까지 이르는 등의 압박에 앞서 고조선이 주변의 부족국가단계의 정치체를 연맹하여 연맹국가단계의 고조선을 형성하고 왕이라 칭하는 등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연에 대치하게 되는 과정에서 전국시대 연의 철문화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고조선이 요하를 경계로 연과 대립할 만큼 국가의 영역이 방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시기의 예맥족 생활권도 이 영역과 일치하는데 대동강 유역에서 요동지방 일대에 독자적인 청동기문화권이 예맥족이 속한 문화권이다. 이 시기에 청천강 이남으로 축소된 고조선 사회는 세형동검(한국식동검)으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청동기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윤무병, 1972:1979).

조선과 연의 경계 추정도(이기백·이기동, 1982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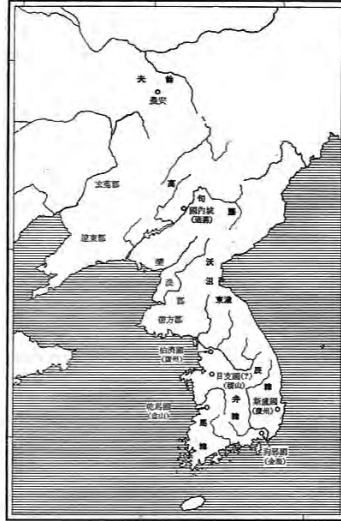


朝鮮과 연의 境界 推定圖

### 3. 기원전 2세기 이후의 예맥

기원전 108년 위씨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는 그 판도 안에다 낙랑, 진번, 임둔의 세 군을 두고 그 이듬해인 기원전 107년 과거 창해군 설치예정 지역이었던 예의 땅에 현토군을 두어 한사군이 성립되었다. 이 시기 이후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 한식계 낙랑토기의 영향이 한반도에 파급되기 시작하며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예맥의 주된 활동영역은 한반도 중북부지역으로 서쪽은 고구려의 성장과 깊은 연관을 맺고 동쪽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헌에서의 해석과는 다르게 고고학적인 증거는 영서나 영동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달레마이다. 기원후 1세기부터 4세기 무렵이 한사군의 영향을 받던 시기이며 이 시기동안 낙랑을 제외한 임둔, 진번, 현토군은 부침을 거듭하며 쇠퇴하였고 옛 진번땅에 대방군을 설치하였으나 결국 4세기에 고구려에 의해 모두 소멸된다. 이 시기에 보이는 예맥의 강역은 북으로는 고구려와 옥저(1세기에 고구려에 복속), 서쪽으로는 낙랑군과 대방군, 남쪽으로는 진한과 경계를 접한다.

연맹왕국 시대도(이기백이그림, 1982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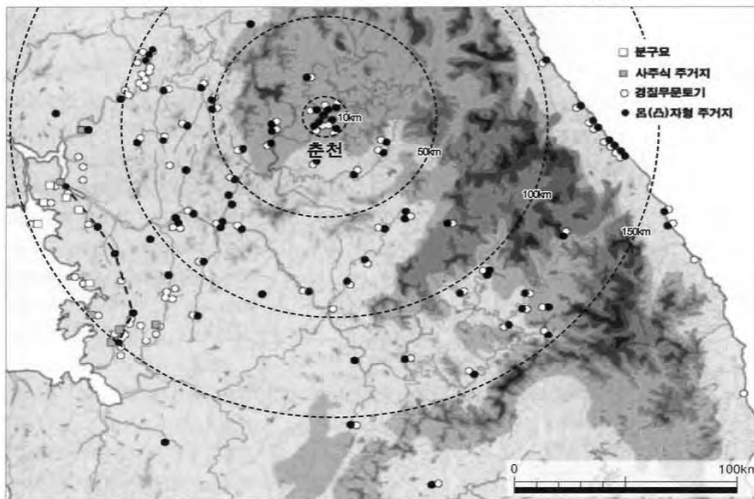
#### IV 강원지역의 철기시대 : 예맥

강원지역의 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에도 종족간 큰 차이가 없이 종족집단의 입지만 달리 하였던 것처럼 물질문화의 전개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앞서 밝혔듯이 기원전 4세기 이전에는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조선이 초기 연맹국가체제를 갖추면서 예맥은 동이족의 테두리 안에서 고조선에 포함되어 있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연의 한반도 경략에 따른 압박으로 강역이 축소되어 청천강 이남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시기에 전국계 연의 철기문화를 받아들일게 되고 초기철기문화를 이룬다. 이어 한나라의 건국과 위만조선의 멸망으로 한반도에 한사군이 설치되는 기원전 2세기 이후부터 한의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부터 예맥의 물질문화의 속성은 구분하기 어려우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연맹국가가시기에 연맹에 속했던 각 부족국가 단위의 집단이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고구려 또는 한나라와 친소관계를 형성하면서 물질문화도 다양하게 교차되며 변화를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도식토기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토기문화가 철기시대 강원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예맥의 주문화로 자리하게 된다. 이후 낙랑의 영향을 받는 한식계 토기문화가 섞이면서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고고학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예맥의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토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고고학적인 접근이 있는데, 먼저 중도식 무문토기의 전통을 동북계토기로 보고 편년과 계통화를 시도한 유은식(2004;2006;2009;2011;2018)의 연구는 예맥에 대한 문화적 전통을 ‘예계문화권’내지는 ‘예족공동체 사회’로 이해하면서 낙랑군 및 동부도위의 설치 후, 본부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놓이는 영서예와 동부도위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는 영동예로 분화되었다는 견해에 동조한다. 기원후 1세기에는 동부도위의 폐지 후 영동예는 독자적인 한의 후국이 되었다. 이 시기의 토기문화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영서와 영동지역의 토기문화를 비교하였으나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 이들의 문화적 변별을 가능하기가 어렵다.

중부지역 철기시대 경질무문토기 및 주거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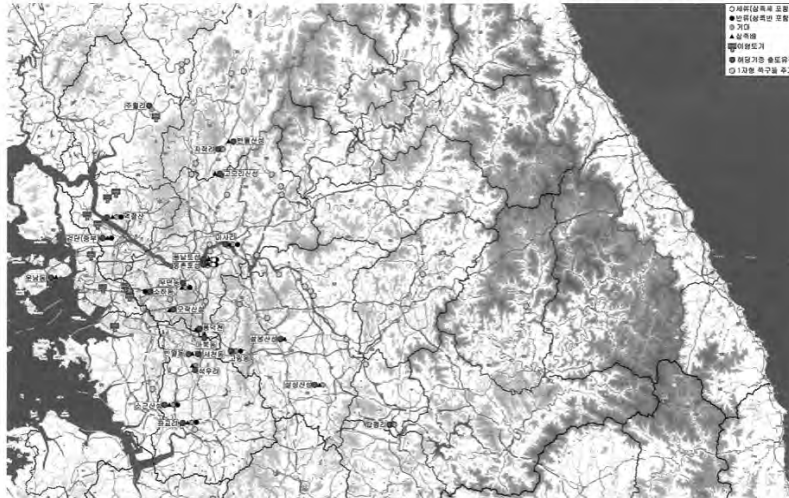
중부지역 경질무문토기 및 철자형 주거지 분포(박중국 2011, 인용·수정)

중부지역 중도유형 주거지 분포도(박중국, 2020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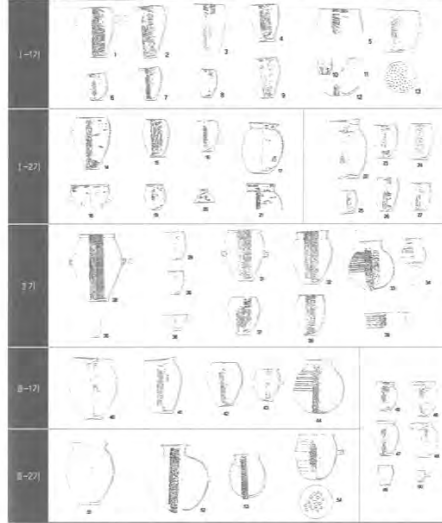
<도면 6> 방형계 주거와 여자형 주거 노시설

중부지역 중도식도기문화와 백제토기의 분포도(박중국, 2020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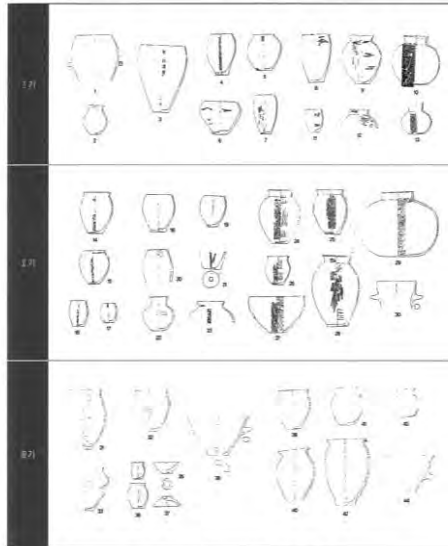
<도면 19> 백제 한성양식토기의 분포현황(세 · 반 · 기대 · 삼죽배)

영서지역 중도식무문토기의 편년(유은식, 2010에서 인용)



(도면 7) 영서지역 중도식무문토기의 편년(축척 약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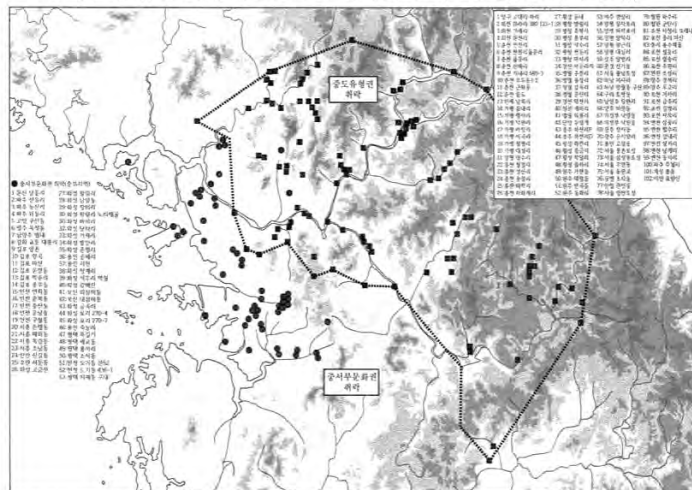
영동지역 중도식무문토기 편년(유은식, 2010에서 인용)



(도면 9) 영동지역 중도식무문토기 편년(축척 약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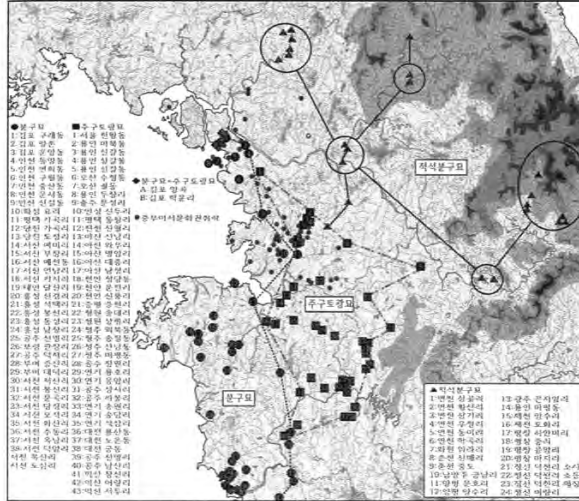
연해주와의 문화적 연결성을 강조하여 단결-크로노우프카문화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중도식토기문화권은 강원도만의 독자적인 문화현상은 아니며 이 문화권의 특징으로 알려졌던 ‘뿔, 뾰’형의 주거지 온돌, 토기 등은 연해주를 비롯해 삼강평원까지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고 중도식토기문화권의 해체는 삼국의 특히 고구려의 형성과 발전 시기와 맞물린다고 보았다. 또한 예맥과 말갈은 같은 계통의 종족이라 보고 고고학적 현상에서는 중도식토기문화에서 말갈에 이르는 그 시기에 결정적 문화의 교체나 주민의 변동은 보이지 않는 환동해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틀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강인욱, 2008;2009;2015;2018;2019).

중도유형권 및 중서부문화권 취락분포도(박경신, 2018에서 인용)



[그림 2-3] 중도유형권 및 중서부문화권 취락 분포도

중부지역 철기(원삼국)시대 분묘 분포도(박경신, 2018에서 인용)



[그림 2-2]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분묘 분포도

## V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 본 ‘예맥’은 발표자의 견해로는 일정한 국가체제의 틀을 갖춘 국가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발전 과정에서 보이는 부족국가와 연맹국가의 성립과정의 발전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분석할 때에도 각 종족집단의 문화적 변별성을 간취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각 부분의 세밀한 부분을 분석해서 변별성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곧 국가체제의 성립과 발전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고고학과 문헌 그리고 문화적 제양상을 학제적으로 협동하여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던져준다고 본다.

현재 예맥의 문제는 영서맥, 영동예, 영서예, 영동예의 용어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 역사단계에서 종족집단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타 집단과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서지역의 세력이 가졌던 낙랑이나 고구려와의 관계설정과 영동지역의 집단이 택한 관계설정을 동일한 관점에서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다.

이는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은 비슷한 수준의 물질문화를 가졌으나 실제 사회의 발전과정은 달랐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치적 입장에서는 영서와 영동은 같은 길을 걷지 않았고 다른 길을 걸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시간적 추이 속에서 대외적인 관계로 힘의 논리에 따라 공간의 이동 및 축소 등이 이루어졌고 각 계기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내부의 문화적 역량에 따라 문화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예맥이라는 큰 종족적 틀 속에서는 큰 차이를 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고학적인 해석이다. 예맥은 주변의 중국 그리고 삼한과는 다른 고고학적 차이를 가지며 현재의 예맥이라 부르는 영서, 영동지역은 비슷한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지만 정치적, 외교적 성격을 달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종합토론

김규운(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규호(강원도의회 도의원)

김병석(강원도의회 도의원)

박미현(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이상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장원섭(경민대학교 효충사관과 교수)

차장섭(강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허남윤(강원일보 문화체육부장)





| 종합토론 |

## 토론문 1

김규운 /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늘 이 토론의 장은 주지하다시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제외된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2021년 6월 10일에 법이 시행되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너무나도 늦은 시점에 비로소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이제부터의 진행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명시된 사업의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결론은 ‘예맥역사문화권’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울 듯하다. 역사적 실체, 성격에 대해 이견이 있고, 오늘 발표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조사, 연구해 나가면 될 것이다.

-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 선구적으로 역사문화원 사업을 시행한 신라, 백제 등을 살펴보면 세계유산 등재와 연동하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지자체에서 구성된 사업단에서 조사·발굴·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유일하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방 분소가 설치되지 않은 광역지자체이다. 가야역사문화권의 시행을 위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격 사업의 시행에 앞서 어느 곳을 발굴하고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다면 강원연구원 내 혹은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안정적인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주기적으로 가야정책포럼을 시행하고 있다. 고고학, 역사학 관련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비·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강원도 역시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 역사문화권 설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역 발전에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시적인 포럼이 필요하다.

- 역사문화권 설정 지역은 대부분 고분 중심이다. 눈에 띄는, 그리고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유적이다. 반면, 예맥문화권은 주거지 중심 지역이다. 고분과는 다르게 눈에 띄지 않는, 말 그대로의 매장문화재이다. 이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주거 문화 조사·연구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학술조사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역사문화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은 정비(복원)부분이다. 주거지 중심의 매장문화재이기 때문에 예맥문화권을 보여줄 수 있는, 정비된 곳이 거의 없다.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학습할 수 있을까. 학술조사에서 밝혀지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 인력양성. 예맥역사문화권 설정과 조사·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교육과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 종합토론 |

## 토론문 2

김규호 / 강원도의회 도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1년여 전인 2020.6.9. 제정되었고, 2021.6.10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 어디에도 강원도는 없습니다. 이 법은 고대사에서 국가의 체제이든 아니든 분명히 실재했던 현 강원도 지역이 배제됨으로써, 역사적 정체성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강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강원도민의 노래 가사 첫 소절입니다. “새 밝의 예나라 정든 내고향 아침 해 먼저 받은 우리 강원도” 학창시절에 불렀던 귀에 익은 노래입니다. 강원도민들은 지금껏 예맥족이 살았던 곳으로 알고 있고, 춘천, 강릉 등에는 맥국과 예국관련 유적과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안이 된 건 2019.4.11.이고, 2020.6.9. 제정되기까지 강원도에서는 어떤 의견도 국회에 전달하지 못했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5.7. 회의록을 보면 지자체에서 ‘탐라’ ‘마한’ ‘중원’을 추가 요구했고 문화재청에서는 시대적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탐라’와 ‘마한’을 추가하였습니다.

3세기 이전 강원도 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사료상에는 삼국지 동이전의 동예,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 보이는 말갈, 낙랑, 예, 맥 등으로 나타나는 정치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 보이는 말갈을 맥계말갈(貊系靺鞨), 신라본기에 보이는 말갈을 예계말갈(濊系靺鞨), 그리고 이들의 문화기반이 해체된 이후 새롭게 고구려에 의해 이주된 아말갈(亞靺鞨)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경희대 사학과 강인욱 교수는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인용하며, “삼국시대엔 강원도 지역 사람들을 말갈이라고도, 예맥이라고도 했다. 강원도 지역을 말갈로 불렀던 이유도 그들이 오랑캐라서가 아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전통적인 농사보다는 사냥과 무렵에 의지해서 백두대간의 산악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이렇듯 우리가 말갈이라는 사람들을 ‘한국사’ 대 ‘오랑캐 역사’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보는 것은 변방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경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 국가로의 귀속의식이 불명확했던 시기에, 이들 예맥(말갈)이 거주하던 강원도는 어떤 의미에서건 열린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강원도를 고대 역사문화권 어디에도 넣지 않은 것은 역으로 말하면 고대 초기역사 시기 예맥(말갈)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맥(말갈)으로 시작해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으로 강원도가 고구려 영토가 되었고, 이후 삼국에 편입이 되었다면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권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맥·말갈역사문화권이든 고구려 역사문화권이든 강원도의 자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갈은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의하면 영동지역에서 신라와 충돌하고, 영서지역에서 백제와 전투를 벌입니다. 말갈이나 예, 맥 모두가 고구려에 복속한 북방 동이족이고, 이전에 한반도에 실재했던 종족이 나중에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녹아들어 한(韓)민족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해 왔지만, 여러 민족과 종족이 전쟁과 문화교류를 거치는 수천년의 역사과정을 통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로 통합된 것이며, 지역별로 남아있는 고유의 풍속, 설화 등에서 원래 종족의 옛 모습을 어렵듯이 들여다 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고대 북방민족이 한(韓)민족화 된 과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북방계와 남방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갈은 오랑캐이다.” 라는 인식을 지우는 일에서 잊혀진 우리의 고대사 일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 드립니다. 강원도에서도 우리의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여 강원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이제는 지역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각 시군에서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문화원이나 향토사연구회, 춘천학연구센터와 울곡연구원 등 지역학 연구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에는 문화유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원연구원에는 강원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사 연구에 큰 구심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사와 연구원 등 전문인력을 뒷받침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정체성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일이 모든 분야에서 강원도 패싱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허영의원을 통하여 이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강원도의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종합토론 |

## 토론문 3

김병석 / 강원도의회 도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병석 의원입니다.

올해 6월 시행예정인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강원지역이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에서 제외되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원지역의 역사문화권 누락은 우리 역사에 크나큰 공백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문화재청이 과연 우리 역사문화 유산을 조사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가치를 제고할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저 스스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는 강원도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민, 언론, 전문가 그룹 모두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안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세분 전문가님의 주제발표를 청취하면서 강원권 고대 역사문화환경의 성격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고구려백제신라로 대표되는 강력한 고대 정치체의 주역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삼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지된 역사적 특수성을 갖고 오랜 세월 지켜온 독특한 문화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원지역의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노력이 전문적인 논의에만 머물러 진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예맥·고구려·태봉·중원 등 용어에 학술적으로 집착하기 보다는 대중적 열망을 함께하고 강원도 전역을 포괄할 수 있는 ‘예맥’으로 중지를 모아 우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당장 다가온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고 강원지역 역사문화권의 본격적인 조사연구와 관련 문화유산의 정비·활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지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강원도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향토사 연구의 역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토론 |

## 토론문 4

박미현 /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헌법

제8장(지방자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8장과 지방자치법 제1장을 서두에 적은 것은 오늘 의제로 삼은 ‘강원지역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전문가포럼’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연방제에 준할 정도로 강력한 자치분권시대를 문재인정부는 천명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오랜 의지를 담아 법을 개정하고 자치분권시대를 열기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데,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민주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돼있는 주민생활 관련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에 대폭 부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각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담아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취지에 맞도록 자치분권을 통해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문재인정부가 천명한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시대’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강원도 고대사 관련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의 여지를 법적,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시대의 가치를 역행하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법입니다. 역대 중앙정부는 강원도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각종 산업단

지와 클러스터, 특화관광지 조성 등 사회 및 경제영역의 개발과 투자에 차별을 가해오더니 이제는 역사영역에 까지 천시하고 있는 오만한 행태의 결과물입니다. 중앙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국 유일한 지역으로 강원도 고대사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나쁜 정책’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하는 취지에도 이 법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누락된 강원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은 당연합니다.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역사문화부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학술조사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도심 확대로 인한 소규모의 구제발굴조사가 대부분이었기에 고대사에 대한 미지의 영역이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다른 시도와 달리 강원도는 남북한 고대사, 한반도 고대사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강원도를 배제한 것은 법제 및 행정 처리 과정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역사인식 부재나 근시안적 태도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법의 고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 속에서 비전을 제시해야하는데, 한반도 차원도 아니고 더 좁게 남한만에 안목이 한정돼있는 고대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역사영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함부로 배제로 결론내리며 재단한 것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고대 역사문화권 분류에 강원도가 유일하게 배척되는 결론에 이르게 한 행정 관계자 및 전문가 누구의 견해가 반영된 것인지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국내외 문헌에 ‘예국’ ‘맥국’이 분명히 기록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규명에 논란이 있다며 ‘마한’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배경에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인지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내는 것은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더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문에서 지난 4월 30일 전라북도와 14개시군, 3개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 그리고 대학과 공공 연구원이 맺은 ‘마한역사문화권 발전 협약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자체는 물론 문화재청 산하에 유일한 강원도 기관인 국립춘천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강원도내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는 상황에서 국립춘천박물관의 역할이 적지 않다 할 것인데, 문화재청과 교통할 수 있는 직할 산하기관으로서 강원도가 이 특별법으로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역 국립박물관으로서 상황 타개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고, 보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과거 강원지역 고대사 관련해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에 큰 상처를 안긴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몸담은 논설위원실에서는 4월 22일자 강원도민일보 사설에서 아래와 같이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역사문화기반 관광에 영향이 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강원도가 누락돼 파장이 큼니다. 이 법은 2년 전 발의돼 작년 6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6월 시행될 판인데,이제야 강원도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합니다. 강원도는 고대사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예국’과 ‘맥국’이 엄연히 기록된 ‘예맥문화권’임이 분명한데도 반영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홀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지난1월 충북이 나서서 강원도를 경북과 함께 ‘중원문화권’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하니 강원도의 역사문화 정체성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이 특별법은 관련 다양한 정비사업에 국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은 물론 연구재단을 비롯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포함하고 있어 전국 시도에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엄두내기 어려운 학술조사 및 정비사업이라 강원도야말로 절실히 요청되는 사안인데 등한시해오다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강원도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도청 문화부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예·맥국은 가야,마한과 마찬가지로 문헌사료에 확실히 기록되었습니다.‘명주(현 강릉)는 옛날 예국이다. 아인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인장을 얻어 나라에 바쳤다’고 삼국사기에 나타나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춘주(현 춘천)는 옛날의 우수주로 옛적의 맥국이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종실록에는 ‘예맥은 곧 오늘날의 강원도 땅입니다. 춘천에서 맥국의 도장을 얻었다고 하니’라는 1535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맥문화권인 강원도는 고대국가 형성기에 여자(呂)형, 철자(凸)형 주거지와 ‘춘천 중도식 무문토기’를 표지로 하는 독특한 문화를 주변 국가세력과 긴밀히 교류하며 영호남의 삼한과는 차별된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당대 유적 유물의 수량과 질적 측면 역시 앞서있다는 게 학계 보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춘천시 우두지구는 맥국유적지로 유력한 곳이기에 이번 사태와 맞물려 눈길이 쏠려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에서 내달 12일 포럼을 마련 중이고, 도는 국회의원을 접촉하며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 하나 시행 1개월 여 앞두고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이 듭니다. 막차를 탄 감이 없지 않으나 앞서 빚어진 실수를 만회할 길은 예맥문화권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뿐입니다.

고대사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문헌 기록과 유적 유물 등에 대한 연구논문과 오늘 발표문을 통해 강원도의 대표적인 이칭이자 고대국가 명칭인 ‘예맥문화권’ 내지 ‘예·맥문화권’ 설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게 됩니다. 고대사의 시기를 늦추면 ‘태봉문화권’ 설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강원지역 전반에 걸쳐 풍부한 철기 유적자산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맥문화권’설정이 보다 타당합니다. 고대국가명이 아닌 ‘중원문화권’이라고 해서 강원도 일부를 포함시키는 등 강원도내를 이리저리 찢는 것은 강원도 역사문화 정체성 설명이나 전반적인 규명에 있어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고대 역사문화권은 독자권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토론문 5

이상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 주지하듯, 가담(賈耽, 730~805)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와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등 여러 문헌에서는 강원지역의 초기 고대국가(읍락단계의 소국연맹체, 기원전 4세기~기원 4세기 무렵)에 대한 기록이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맥국(貊國, 지금의 춘천지역), 예국(濊國, 지금의 강릉지역), 실직국(悉直國, 지금의 삼척지역) 등 독자적인 정치체인 소국(小國)의 명칭이 등장하며, 그 종족은 대체로 예족(濊族)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그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이들 정치체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소국의 정치체들은 철기시대(초기철기~원삼국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 북부지역에 들어선 중국 한군현(漢郡縣)과 주변의 한성백제와 삼한(마한·진한·변한 등) 등 여러 세력들과 역사적 변동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복속, 교섭, 교역 관계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독자적인 세력집단으로 존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최근까지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보면, 강원지역은 한반도 중부와 남부지역에서와 같이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해 청동기시대 후기문화를 토대로 한반도 북부로부터 전래된 초기철기문화(세형동검과 점토대토기 등)가 시작되면서 기원 전후 무렵부터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은 당시 한반도 중부지역(서울·경기·충청도 일부)에서 유행했던 소위 “중도유형문화(中島類型文化)”로 불리는 집자리(묘자형과凸자형주거지, 육각형주거지 등)와 토기(경질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를 공유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양상은 예(또는 예맥)의 기층문화로서 이해되며, 시대적 변천에 따라 문화의 공통성과 일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3. 『후한서(後漢書)』와 『삼국지(三國志)』에는 한반도 중남부에 마한(馬韓) 54개국, 진한(辰韓) 12개국, 변한(弁韓) 12개국 등 소국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삼한의

소속된 여러 소국들의 위치비정에 대해 현재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소국연맹체에 대한 학계의 위치비정에 따른 고고학적 양상을 비교해 보면, 강원지역의 소국들도 양적·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강원 춘천지역과 강릉지역, 동해·삼척지역은 청동기시대 후기 이래 철기시대 유적·유물의 고고학적 양상은 삼한의 소국으로 추정되는 제 지역의 문화적 수준 못지않게 전개·확산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시간적 변화에 따라 우위에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을 지녔던 것으로 파악된다.

4. 결국 삼국시대 이전 강원지역의 고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한반도 북부와 중남부를 아우르는 시공간적 위치와 변화의 초점에 기반하여야 할 것이며, 시간적 위치 변화에 따라 강원지역의 고대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또는 차별성)이 공존하는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고대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복원하기 위해서 지역별·시대별 문화권설정은 매우 바람직하나, 특히 강원지역의 예(또는 예맥)의 역사문화를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지역의 고대 역사문화를 위한 “예맥문화권(濊貊文化圈)”의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종합토론 |

## 토론문 6

장원섭 / 경민대학교 효충사관과 교수

이번에 발표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나. 백제역사문화권 :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다. 신라역사문화권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라. 가야역사문화권 :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마. 마한역사문화권 :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바. 탐라역사문화권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위에서 보듯이 유일하게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가 제외된 것은 현 정부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정치권이나 행정, 그리고 학계마저도 한걸음 뒤쳐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반성부터 해야 한다.

토론자는 일단 그 원인 분석과 대안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이 세미나 참석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 1. 원인 분석

### 1-1. 강원도 예맥문화 인식 소홀과 오류

70년대 후반부터 『三國史記』 말갈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그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만주사와 발해사 연구자들이 ‘말갈’이라는 용어에 집착하여 강원도의 예맥문화를 그들의 아류문화로 해석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이번 세미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맥문화권’ 설정을 주장하면서도 주로 춘천지역 중심의 ‘貊 문화권’에 치중되어 있고 영동지역의 ‘濊 문화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점도 그런 이유의 하나라고 하겠다.

### 1-2. 삼국사기 말갈 연구자 저변 부족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자가 너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사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초보적인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연유로 어떤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주장을 외면하고 자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다른 연구자의 說이나 아이디어를 인용하면서도 내용이나 용어를 일부 바꾸어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것처럼 발표하는 비학문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 1-3. 연구 중심 부재

예맥문화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문헌과 고고학의 학문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내 각 대학에 강원도의 역사문화를 주도하는 연구소가 없는 것이 바로 강원도의 학문적 수준을 말해준다.

### 1-4. 학계와 정치계 문제의식의 부족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도내 학계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반응도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근래에 세간의 대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中島’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하겠다.

## 2. 대안

### 2-1. 도내 각 대학에 예맥 관련 연구소 개설

각 대학에 역사문제연구소를 개설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 2-2 예맥문화 관련 연구 공모 활성화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예맥문화권(역사) 연구에 대한 공모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나눠먹기식의 공모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2-3. 강원 예맥문화 연구를 위한 ‘학회’ 창설 제안

삼국사기 말갈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풍토를 권장하고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맥문화연구학회(가칭)’를 창설하고 연간 4회 정도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학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T/F팀 모임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토론문 7

차장섭 / 강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강원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산정할 때에는 예맥 문화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와 맥을 영동과 영서로 분리하더라도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국과 맥국의 공통점은 향후 연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문화가 고대로 갈수록 이질적인 것은 당연하다. 고대 문화의 중심은 물길이다. 영동지역은 동해안의 연안 항로를 통하여 소통하고 교역하였으며, 문화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영서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물길을 통해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백두대간으로 인해 두 지역 간의 교류에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영동과 영서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동질성의 문화권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원도를 예맥문화권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예맥문화권으로 생각되는 강원도 지역은 성읍국가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의 뿌리이다. 한옥 온돌의 기원이 동예로 알려진 것 등이 단적인 예이다.

예맥에 대한 연구는 현재 연구 성과가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영동을 예국이라하고 영서를 맥국이라고 하는 가설조차 아직은 정립된 단계가 아니다. 연구가 미흡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맥문화권으로 설정하고 향후 집중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가야문화권이 설정되면서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예를 예맥문화권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될 듯하다. 예맥문화권의 설정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예맥문화권이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뿌리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종합토론 |

## 토론문 8

허남윤 /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장

“강원도는 사람이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소중한 공간이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승자에 의해 기록되고 전승되는 게 역사다.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사료와 유물 등을 통해 역사의 한줄기를 보고, 연구 과정을 통해 그 실체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국가의 역사에 있어서 이 같은 명제가 정립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가진 자, 힘의 논리가 향토사나 지역의 역사를 실증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적용될 수 있다. 과거 역사의 한 장면만으로도 관광자원이 되고, 유서 깊은 고장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이런 면에서 늘 소외됐고, 발전을 이어가지 못했다. 과거 전국체육대회가 춘천에서 열렸을 때 당시 대통령은 “강원도는 미래의 땅”이라고 얘기했다. 과연 미래는 어느 시점에 도래할 것인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면면을 들여다봐도, 이런 힘의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불편함이 앞선다.

한반도의 역사, 넓게 보면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자랑스러운 역사에 있어서 유독 강원지역만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산이 많아서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마도 그것을 펼칠 수 있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고고학자인 아리미즈 교이치(有光教一)은 ‘조선빛살무늬 토기 연구’를 통해 “경남의 신암리(新岩里)에서 함남의 강상리(江上里)까지의 동해안 지방에는 즐문토기유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논리는 무려 60여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관이 됐다. 196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펴낸 ‘한국지석묘연구’에서도 “고성 이남의 동해안에는 원래 지석묘가 잘 발견되지 않는 곳”이라고 서술했다. 강원지역의 선사문화에 대한 인식은 이러했다. 이 지역에 실제 유적이 없었던 것일까. 당시 교통망 등 여러 요인으로 조사가 미흡했고, 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강원도는 예맥의 정신이 만들었다고 한다. 예맥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을 국가체제의 틀을 갖춘 국가의 개념이기 보다 역사발전의 과정에서 보이는 부족국가와 연맹국가의 성립과정의 발전단계로 봐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국가라는 개념은 우리의 선입관이 가미된 것이 아닌가. 국가라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은 공간 즉 국경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법과 체계다. 법이란 말 그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준이자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체계란 정치지형이다.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큰 틀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고대와 현대의 시선으로 같이 볼 수 있는지가 논쟁이어야 하지 않을까.

당시의 생활상과 정치지형, 외교, 안보 등 여러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강원도사에서 찾은 맥국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와 지리지 이래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 관련 사료에서 춘천이 맥국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춘천지역에 전해오는 맥국 관계 전승과 더불어 고대의 ‘춘천=맥국’으로 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적할 만한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미흡하여 일부의 회의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헌기록과 전승은 이 지역이 고대에 맥국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중국 측 문헌에 의하면 맥(貊)은 예(濊), 한(韓)과 더불어 우리민족을 구성하는 종족 명칭으로 지칭돼 왔다. 이미 선진문헌(先秦文獻)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예맥은 시대에 따라 지칭하는 지역이 달라짐으로써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수년전 강원도 역사에서 맥국은 예국의 한 지방에 관한 것이고, 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많은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춘천의 근분을 없애려는 시도라는 다소 강한 어조의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는 게 마땅하다. 그 주장이라는 것이 유물이 없다는 것, 예국의 유물이 영서지방에서 나왔다는 것, 유물 몇 개로 모든 것을 판가름 하려는 모순이 현대사회에서도 언급되는 건 아닌지 하는 불편한 생각이 앞선다.

고등학교 자녀의 역사 교과서를 훑어봤다. 예맥의 역사를 찾을 수가 없다. 강원도민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고장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찾고 계승시켜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강원도 역사를 별도의 텍스트로 만들어 배포하고 가르치는 과정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또 하나 주제로 돌아와 이 포럼의 주제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권을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단순히 남들 다하는 것에 우리(강원도)만 빠졌다는 알팍한 피해의식이 아닌, 정당한 요구다. 강원도 역사의 과정을 담아내는 건 강원도의 정신을 온전히 바로세우는 과정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고대 강원인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

**강원지역 고대 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전문가포럼**

---

인 쇄 2021. 05.

발 행 2021. 05.

발행처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인쇄처 도서출판 산책

---

